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6
2010년 6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 · 편집인 洪元基 인쇄인 이영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E-mail : kjc1405@hanmail.net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02)732-4798
02)2273-4253
Fax 02)730-1270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91호

北韓 버릇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

大韓言論人會 '6·25 60주년과 한반도 安保' 대토론회

"북한은 걸핏하면 事端을 일으키며 긴장으로 양보를 강요한 반면, 우리는 스스로 '햇볕, 햇볕' 하며 저들의 비위를 맞추며 버릇을 잘못 들여왔다. 한국이 서둘러 화해를 구걸하려 들면 북한에 코를 꿰이고 미래를 잃게 된다.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난 5월 19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회장 홍원기)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에서 김희상 전 대통령국방보좌관(현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연합사는 한미군사동맹의 결정적 연결고리며 핵심 시스템이다.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는 그 칼날이다"고 전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이어질 연합사해체문제는 서둘러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안보의 가장 긴급한 과제"라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도발은 더욱 더 빈번해지고 극렬해 질 것이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도발의 충격도 차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천안함 사태도 연합사가 해체된 후의 일이었다면 사회적 충격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정일은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체제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은 지금도 인민이 굶어 죽는 참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핵을 움켜쥐고 간접침략과 군사도발에만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열기로 가득찬 '6·25 60주년과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장.

제22회 대토론회 '6·25 60주년과 한반도 안보' 개요

때 : 2010년 5월 19일 14:00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 文明浩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제1주제 : 6·25 60주년과 한국 안보
발 표 자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
토 론 자 :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신대근 전 대구문화방송 사장

제2주제 : 납북언론인 생사확인 되어야 한다
발 표 자 : 도준호 명지대 교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토 론 자 : 이애란 탈북여성 첫 박사, 경인여대 교수
이태영 KOC 국제위원회 위원

정 리 : 李圭燮 본보 편집위원
사 진 : 李保吉 본보 편집위원

한미동맹은 칼집, 연합사는 칼날

이날 토론회는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의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 이혜복 원로위원 등 본회 6·25참전용사와 종군기자, 일반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문명호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본회 논설고문)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제1주제 '6·25와 한반도 안보' 패널로 참석한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전 성우회 사무총장)은 "전작권전환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22개 안보단체가 3년 8개월만에 완료하여 백악관과 미 국방장관, 청와대와 국방당국에 보냈다"면서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만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말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戰史교육이 전혀 없다"고 개탄하면서 "젊은 세대는 물론 후대에 안보의식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6·25를 바로 알리기 위해 '6·25는 무엇인가?(글 : 김순옥 예비역 해군대령)' 300여권을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제1주제 토론자인 신대근 전 대구문화방송 사장은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가 공식발표 돼도 군사적 응징은 불가능하고 UN 주재의 응징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하며 김정일 이후의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태도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희상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삐라 폭탄'과 대북방송 재개 등 체제를 위협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이 김정은체제로 가면 집단지도체제로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단과의 상호신뢰가 무너지고 내부갈등으로 급변사태가 온다"고 전망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대토론회 주제 발표 3·4면, 토론 내용 지상 중계 5·6·7·8면

對北 주도권 확보 적극전략 시급

大韓言論人會 '6·25 60주년과 한반도 安保' 대토론회

또한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대근 전 사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군의 기강해이다. 좌파정권 때 主敵개념을 폐지하고 애매한 낙관론이 팽배하면서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같은 안보의식 해이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강국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여 회원으로 가득찬 토론회장.

납북언론인 정식의제 제기 해야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명지대 초빙교수)은 '납북언론인 생사확인 되어야 한다'는 토론회 제2주제 발표를 통해 6·25전쟁 초 3개월 동안 8만 3000여 명의 비전투 민간인이 북으로 납치됐고, 이 가운데 249명의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뒤 "역대 정부는 납북자 송환노력은 물론 생사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거 입북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없다'는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거나 남북화해를 위해서는 이 문제는 덮어주는 것이 낫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대거 납북은 남한에 비해 인적자원이 열세였던 북한이 전문지식을 활용할 목표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강제 납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준호 교수는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 납북자를 포함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이산가족문제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과 비공개로 접촉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설치하여 북의 납북자 가족이 확인되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언론인회가 2002년부터 납북언론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국내외 각종 언론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북한문제 해결핵심은 인권

이날 토론회에 흥일점으로 패널로 참가한 탈북 여성 첫 박사인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는 할아버지의 월남과 지주집안, 기독교가정이라고 낙인찍혀 11살 때 간동으로 추방되어 고초를 겪었던 지난날을 되돌아 본 뒤 "당시 남한출신 지식인들도 간동지방에 많이 살았다"고 증언했다. "납북자 일부는 대남공작원으로 활용하거나 산간오지, 탄광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것. 김 교수는 강한 북한 액센트에 직설적 표현으로 "천안함 격침도 북한이 한 짓이지 왜 멀쩡한 배가 두 동강났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천안함 어뢰설은 소설'이라고 말한 정치인을 강도 높게 비난해 박수를 받았다. 또한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핵개발과 천안함 피격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말했다.

"북한문제의 해결핵심은 인권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존 납북자 가족들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산가족들이 나서서 우리가족을 찾아달라, 송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납북자 문제 국제여론화 절실

제2주제 토론자로 나선 이태영 KOC(대한올림픽위원회) 국제위원회 위원은 "납북인사 가족의 한 사람으로 가족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사적인 비극이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해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납북 된 이 위원의 부친 李吉用 전 동아일보 기자는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이다. 이 위원도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체육부장을 거쳐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로 납북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위원은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무조건 보내면서 납북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태도에 불만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초기 전쟁 중 납북인사를 480명으로 잘못 발표한 것도 인식의 중대한 오류이자, 6·25납북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언론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북한인권주간 행사의 하나로 광화문 4거리에서 '납북자 인사 이름 부르기' 행사에 외국 언론은 관심을 가졌으나 국내 언론의 무관심을 개탄했다.

"납북자 문제는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하고, 미국 디펜스포럼 등 인권단체와 일본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여론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6·25 60주년 이전에 대통령 담화나 어떤 형식이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의지를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할 때

이에 앞서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60년이 되었으나 북한은 핵폭탄 보유, 특수전 병력 5만여 명 휴전선 배치, 천안함 피침 등 더 위험한 집단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한반도의 안보와 납북언론인 생사확인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 국방안보의 현안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해 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엄종식 통일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은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한반도 안보의 현주소를 일깨워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초"라며 "올바른 남북관계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이명박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홍원기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6·25 전쟁 60주년을 맞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일제히 남침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함락 당했고 30일에는 수원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전쟁은 유엔군 참전으로 밀고 밀리며 3년을 끌었습니다.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 됐고 남북한을 막론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손실은 남북한을 합쳐 수백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비행기 폭격으로 죽은 민간인, 피란길에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이산가족이 남북으로 갈려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쟁 초기에 비전투 민간인 8만3천명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중에는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백관수 동아일보 사장 등 언론인 24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참혹했던 실상은 우리 뇌리에서 까맣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그때보다도 더 위험한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우선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전 병력 5만여명을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해 유사시 기습작전을 펼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과학적, 객관적 조사 결과 북한 소행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6·25와 한반도 안보', 그리고 '납북언론인 생사 확인돼야한다'라는 주제로 이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 국방안보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두루 이해하고 대비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를 갖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韓·美 연합사'는 最上의 안전장치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 제1주제 요약

1. 6·25 이후 60년의 남과 북

오늘 김정일 체제는 체제 자체가 국민을 먹이고 보살피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체제나 다름없다. 통치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통치 관행이나 '선군정치'라는 통치 방식도 문제다. 이런 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총체적 경쟁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다행히 때마침 시작된 '햇볕정책'과 급속히 성장한 중국의 도움으로 단순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初有)의 대규모 군사력을 쌓아 놓았고 핵까지 만들었지만 그 대신 북한의 경제는 거의 파탄상태에 이르고 마침내 체제유지 자체가 어려운 한계상황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것 외에는 김정일이 체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

2. 한국 안보상 도전과 그 含意

이번 천안함 사태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6자회담'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고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상해 엑스포'가 예정된 시점에 NLL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핵', '간접침략'과 함께 6·25이후 지속된 '무력적화통일'의 수단이자 김정일 체제가 먹고 살아온

김희상

'깡패 외교(brinkmanship)'의 수단인데 이번 사태는 지난 60여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군사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이라는 반증(反證)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함 공격 방식 외에도 테러나 다양한 비대칭도발(非對稱挑發)을 감행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특수부대를 고려하면 우리 군은 정규전 대비 못지않게 이런 위협에 대비한 역량도 갖추고 태세도 확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다. 자유민주통일을 원만 하게 이루어 내자면 주변 4강과도 잘 지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중국과의 '상호이익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내고, 북한 급변사태 시에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나라(stakeholder)는 한국이라는 사실도 인식 시켜야 한다.

4. 한·미 군사동맹체제 재정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역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미 군사동맹', 특히 '연합사로 연계된 한·미 군사동맹' 체제는 지난 수 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 왔고 지금도 북한 핵과 전면도발에 대한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며,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의 길이자 수단인 동시에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자유 대한민국 생존에 최상의 안전장치(安全裝置)다.

연합사는 한·미 군사동맹의 결정적 연결고리이자 그 현실체인 핵심 시스템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연합사가 없는 한·미동맹은 이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제 연합사까지 해체되고 나면 도발은 더욱 더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것이다. 한국사회에 미치는 도발의 충격도 차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3. 대처방법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안보의지(安保意志)와 소양 그리고 지혜를 제고하는 것일 것이다. 당연히 우리 국방태세도 재정비해야한다. 우선 강하고 효율적인 군사적 위엄(威嚴)과 역량이 있어야 유사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또 조기에 제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함 공격 방식 외에도 테러나 다양한 비대칭도발(非對稱挑發)을 감행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특수부대를 고려하면 우리 군은 정규전 대비 못지않게 이런 위협에 대비한 역량도 갖추고 태세도 확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다. 자유민주통일을 원만 하게 이루어 내자면 주변 4강과도 잘 지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중국과의 '상호이익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내고, 북한 급변사태 시에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나라(stakeholder)는 한국이라는 사실도 인식 시켜야 한다.

4. 한·미 군사동맹체제 재정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역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미 군사동맹', 특히 '연합사로 연계된 한·미 군사동맹' 체제는 지난 수 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 왔고 지금도 북한 핵과 전면도발에 대한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며,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의 길이자 수단인 동시에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자유 대한민국 생존에 최상의 안전장치(安全裝置)다.

연합사는 한·미 군사동맹의 결정적 연결고리이자 그 현실체인 핵심 시스템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연합사가 없는 한·미동맹은 이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동맹이 그랬듯이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지금은 미국과의 뜨거운 혈맹적 우의와 단순한 구두약속이나 문서상의 동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금 같은 '구조적인 동맹 체제'가 특별히 긴요한 때이다. 연합사 해체 문제는 어떻게 하든 서둘러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점 한국 안보상의 최고 긴급과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을 상당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할 특별한 동맹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양국의 혈맹적 우의도 그만큼 뜨겁고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에 그만한 국가적 실익도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먼저 '잘 지내자'고 손을 내밀 만큼 우리의 동맹적 가치부터 서둘러 창출하고 특히 호혜적 혜택 못지않게 위험과 책임, 부담의 공유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5. 보다 적극적인 對北政策을

이렇게 국가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재정비하면서 그와 함께 이제는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이 정보화 시대에 3대 세습의 정착이 가능 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김정은이 중심이 된 과도체제든 집단지도체제든 결국은 곧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으로 이어져 그야 말로 북한 급변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 체제와 우리의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체제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과 삶의 질에도 좀 더 직접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사 그저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기 바빴다.

그렇다면 차제에 어떻게 하든 일방적 지원과 협박으로 대비되는 과거의 왜곡된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상호관계로, 주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6. 비전과 의지의 문제

우리가 초조해 하지 말고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예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의 궁극적 승리가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엄종석 통일부 차관 축사

통일부 차관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뜻 깊은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대한언론인회가 매우 시의적절한때 우리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한언론인회의 홍원기 회장님과 함께해 주신 전현직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희상 전 안보보좌관님과 도준호 전 논설위원님의 발표는 오늘 토론회의 수준을 더욱 높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언론인회는 우리 사회의 언론발전은 물론 남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직 그 결실을 거두고 있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에는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북 분단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안보의 현 주소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남북관계는 확고한 안보태세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론통합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되돌아보고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뜻 깊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拉北 언론인 生死 확인돼야 한다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 제2주제 요약

도준호

政府 일관된원칙갖고 요구해야 정확한 실태 파악 전담 기구 필요

6·25전쟁중 납북된 언론인은 모두 249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납북된 비전투 민간인 8만3천여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언론인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납북된 경우는 세계언론사상 전례가 없다. 피살된 언론인도 36명에 이른다. 납북 언론인 가운데는 방응모(方應模·조선일보사장) 안재홍(安在鴻·한성일보 사장) 백관수(白寬洙·일제강점기 동아일보사장), 언론인이면서 소설가였던 이광수(李光洙), 방송인 겸 시인 김억(金億), 방송인 겸 수필가 김진섭(金晉燮)등 신문과 방송계의 많은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5개 일간지의 현직 편집국장도 납북되었다. 경향신문의 신태익(申泰翊), 동아일보의 장인갑(張仁甲)을 비롯해 지금은 없어진 한성일보의 양재하(梁在廈), 자유신문의 마태영(馬泰榮), 태양신문의 남국희(南國熙)가 중앙지의 납북된 현직 편집국장이다.

납북언론인을 회사별로 보면(창간순) 조선일보 9명, 동아일보 16명, 서울신문 11명, 경향신문 9명, 자유신문 7명, 대동신문 3명, 한성일보 7명, 현대일보, 경제신문 7명, 민주일보 4명, 부인신문 4명, 연합신문 5명, 태양신문 5명, 서북신문 7명이다.

통신사는 11명, KBS 28명이다.(납북 인원이 2명이하인 언론사와 소속이 불명인 자는 생략)

북한은 해방후 대거 남한으로 이주한 지식인, 지주등 고급인력부족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남침전부터 조직적으로 대규모 납북계획을 세웠다. 김일성은 1946년 '남조선에서 인텔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부족한 인텔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텔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텔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지령했다.

이른바 반동분자등 장차의 대남전략에 활용하기위한 강제납치도 있었다.

북한은 1956년 남에서 끌고 온 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뇌교육과 인간개조운동을 실시했다. 이운동에 소극적이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탄광, 공장, 수용소로 추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들까지 낮은 사회적 지위가 주어졌다.

납북자가족들은 휴전회담을 통해 납북된 부모나 형제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완고한 반대와 유엔군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했다. 휴전에 급급했던 유엔군은 초기에 제기했던 민간인 납치 문제를 슬그머니 접어 버렸다. 1952년 1월8일 열린 휴전회담 제66차회의부터 피랍자(Kidnapped persons)라는 용어대신에 북한의 주장대로 실향사민 (失鄕私民·Displaced civilans)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실향사민이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란 뜻일뿐 강제연행된 피랍자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휴전협정후 송환된 사람은 북한 억류 외국인 19명과 남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국인 37명이 전부였다.

이에따라 납북자문제는 국제적십자사로 무대가 바뀌었다. 국제적십자사의 중재로 북측은 1956년 10월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적총회에서 생존자 337명의 명단을 내 놓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1972년 7·4공동성명이후 남북당국간과 적십자접촉이 재개됐으나 '이산가족문제'가 중심을 차지하면서 전쟁 납북자문제는 뒷전이었다. 전쟁 납북자문제가 소외된 것은 북한이 아예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은 데다 전쟁후 남북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납북자를 월북자와 비슷하게 인식해 당국이 연좌제를 실시하면서 연고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우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다. 우리정부당국의 책임도 막중하다. 특히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이 문제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962년 3월 납북자문제를 장기연재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조선일보는 1964년 6월 '납북인사송환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한국전쟁 납북사건 사료집 2권을 발행했으며 2003년부터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지난 3월 2일 7년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지금도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한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납북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기자회견등을 통해 자진월북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해체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매년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으며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경제난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체제의 본질적 속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은 남한 당국과의 협상을 혁명달성을 위하여 물리적 힘대신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따라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온 전략을 병행해야하며 대북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1.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전쟁후 혼란기에 만든 납북자 명단은 불비한 점이 많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대책마련등을 위해서는 정부내 전담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2. 이산가족문제와 분리해야

정부는 납북자문제를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문제는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다루는 현행 방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격상 차이점을 존중해야 한다.

3.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정부는 이제까지와 달리 전쟁납북자를 포함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주요의제로 선정해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를 갖고 북한에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정해 북한과 협상한 결과 납북자를 일본으로 데려왔으며 김정일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4. 독일의 선례에 따를 필요

통일이전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 정치범석방을 요구했으나 동독측이 정치범 존재를 인정하지 않자 표면에 디아코닉재단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해 동독측과 비공개협상에 나섰다. 1963년부터 서독정부는 정치범 석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989년까지 동독정부에 총 35억마르크를 지불하고 약3만4천명 정도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송환했다.

새로 설립될 민간기구는 북측에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납북으로 인한 당사자 및 가족들이 겪은 오랜 기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보편적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기타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왕래등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또 북의 납북자 가족이 확인되면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민간기구가 북측과 비공개 접촉을 하는 데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5. 민간, 가족단체 역할 분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등 북한내부에 치중한 감이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전쟁납치범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정부와 민간단체 가족단체들이 끊임없이 이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6. 대한언론인회내에 기구를

대한언론인회가 2002년부터 납북언론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대한언론인회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함께 이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국내외 각종 언론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있다. 당장 국제정치적 여건도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미국의 후퇴와 중국의 도약'이 만들고 있는 미래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을 생각하다보면 초조하기까지 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가운데 체제를 안정시키게 되는 날이면, 1950년에 이어 한반도의 균형이 또다시 북한으로 경사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가 적어도 아직은 우리의 의지와 비전에 달려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의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내일 더 참혹하고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실로 우리 온 국민이 적화통일 이외에는 김정일 체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자유민주통일 외에는 북한 핵을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운명적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위난(危難)의 시대가 미래 한민족 대동(大同)의 세계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젊은 세대에 戰史-안보 교육 절실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 지상 중계

이날 토론회는 정운종 본회 상임이사의 안내로 식전 행사인 국민의례와 문명호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의 사회로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탈북여성 이애란 박사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젊은 세대는 한명도 없고 어르신들만 계신다. 이 나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눈에다 꼬챙이를 끼고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가 끝난 뒤 뒤풀이 리셉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담소를 나눴다.

▲문명호=오늘 이 자리에는 6·25전쟁 때 종군하신 이혜복 전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언론계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를 맡게 되어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사회를 보았지만 오늘은 어느 때 보다 긴장되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그동안 우리 국민이 국가 안보에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해온 데 대한 자각과 자성 때문입니다.

한 군사문제전문가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된 것은 지난 반세기 넘게 역사를 잊어버리고, 6·25전쟁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역사적 경험을 가르치는 데 너무 소홀했다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역사란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항상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은 동서양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발을 막는 방어개념, 국방이라는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발자체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지니는 안보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소홀히 해 왔던 6·25 전후 납북자들과 국군 포로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당면한 시급하고도 절박한 안보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는 중요한 토론의 장(場)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형태 도발 우려 된다"

▲김희상=6·25 60주년이라고 하지만 휴전협정이후 총성은 멈췄지만, 그 이후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1·21사태'라든가 '울진 삼척 공비사건'을 비롯하여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소위 인민혁명전쟁전략, 또 그 뒤에는 핵과 간접침략 군사도발 등 방법만 달리했을 뿐 북한의 침략은 내밀하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남한의 햇볕정책과 중국의 지원으로 겨우 살아가면서도 경제보다는 무력에 근거한 강성대군을 내세우고

제1주제 '6·25와 한반도 안보' 토론장면.

군사제일주의에 이어 선군정책으로 나갑니다. 당연히 군사비 비중은 계속 늘어나 우리는 지금 GDP 대비 2.7%의 군사비도 많다고 비판하는 데, 북한은 그때 27%, 황장엽씨 말로는 50%까지 된다고 하니 경제가 어떻게 버텨나겠습니까? 이제 북한은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 몰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 실태가 실시간으로 서울로 전송 되는 것을 보면 북한의 통치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사회생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의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함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특수 관계인 중국의 상하이엑스포가 예정돼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단행했다는 것.

또 NLL 경계선을 넘어와 격침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때를 맞춰서 해군사령관 진급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한국에 대한 경멸이자 모욕입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망설임 없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군사도발을 계속 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테러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수도권에는 간단한 테러만으로 국가적 재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화 되고 또 연합사 까지 해체되고 나면 이런 도발은 더욱 빈번해 지고 극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북한의 핵은 우리의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지원도 쉽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자유민주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내자면 주변 4강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배려는 특별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혹시 김정일 체제를 한반도의 중심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지, 한반도가 제2의 티베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한반도를 '핀란드화' 하려고 들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G2로 성장한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이든 뭐든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과 '상호이익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아내야하고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도 인식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문명호=감사합니다. 김 장군께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세 가지 함의를 말씀하셨듯이 상하이엑스포가 예정된 시점에 NLL경계선을 넘어선 도발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더 절실한 시점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도발과 테러행태가 더욱 빈번해지고 극렬해 질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끌려 다닌 남북관계를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나가야 하는 기회라는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 데,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우리 쪽에 침투해오면 우리의 감지능력은 2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잠수정 또는 적군의 잠수함을 100% 감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가 완벽하지 못하다거나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연합사 존재해야 전쟁방지"

▲이정린=김희상 장군께서 우리가 처한 안보 현황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뭐냐, 우리가 6·25한국전에 180만 명이 로테이션으로 참여하여 3만 6000명의 전사자와 12만 명이 희생됐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감정은 뭐냐"하며 反韓 감정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고 주장하자 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이 맞는 것인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기왕 해체하려면 당장하자고 나왔습니다. 성우회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어차피 한국은 준비가 안 되는 것이니까 빨리하자는 것이었지요. 결국 한국 정부가 매달려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상 장군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기간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여 연합방위태세를 갖췄을 때 한국에서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북한 핵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 우리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확고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전쟁에 대한 가혹함과 안보의 중요성을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이런 위기는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도 안 가르칠 뿐더러 戰史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6·25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분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후손들에게 진정한 6·25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GDP의 1.5%인 방위비를 점차적으로 3% 내지 4.5% 까지 올려야 합니다.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호=이정린 차관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안보상황과 전사교육 부재를 지적하셨습니다. 안보교육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안보교육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의 역사, 나라 바로 세우기 등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北 급변 사태 대비 구체 방안 필요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 지상 중계

5면에서 이어집니다.

"主敵 없애 군 기강 해이"

▲신대근=김희상 장군께서는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의 비전과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의 미국의 한계도 함께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김정운으로의 권력승계과정에 있는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여간 우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바로 국경 근처에 수십만 군대가 주둔해있고 그동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급변사태 때 과연 김 장군께서 강조하셨던 한미동맹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2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 두 좌파정권의 햇볕정책 때와는 대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우리사회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도하에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김 장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의 자세가 한반도 안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김 장군께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 고관들이나 국회의원 중에는 군대 근처에 안가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후 세대 중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북한의 소프트한 선전 선동에 따라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안이한 인식들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은 우리 것인데 무슨 걱정들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들까지 널리 퍼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군의 기강도 좌파정권 때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폐지 한 뒤 애매한 낙관론이 팽배하면서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명호=신대근 사장께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김 장군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북한 감싸기도 한계"

▲김희상=황장엽씨는 북한 급변사태 안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덕홍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김정일이 죽고 나면 급변사태가 온다' 고 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駐북한무관을 오랫동안 했다는 엄감홍 위원장을 만났더니 북한에 급변사태는 나지 않고 김정운이 되더라도 집단지도체제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론자 · 이정린씨

토론자 · 신대근씨

사회 · 문명호씨

그래서 "중국은 집단지도체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수십년 1인 독재체제를 지내왔던 북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고 본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일이 죽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집단지도체제도 내부갈등으로 결국 급변사태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는 데 중국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열지 못할 문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중국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신문에 쓴 칼럼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격을 해가지고 얻을 이익보다는 공격이나 도발을 했을 때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감히 도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억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도발이 있다면 아주 가혹하게 응징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9·11사건 때 일개 국가를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6·25이래 지금까지 1·21사태 등 전쟁을 선포해도 좋을 엄청난 도발이 있었어도 한번도 제대로 된 응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 같은 도발을 일상적으로 감행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리고 군의 기강 해이와 국민의 정신자세를 말씀하셨는데 군인정신도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정신위에 서있는 게 군인정신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한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군인 정신만 유독 독야청청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 올바른 국가정책이 강국을 만드는 것이다.

"군 복무 단축 재검토를"

▲문명호=어떤 토론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주적개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근본원인이고, 군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급장교들이 무척 당혹스러워하며 그래서 군 복무 단축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상=1분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 하셨듯이 10년이 잘못돼 왔으면 이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때 시작됐으면 연합사해체 문제는 지금쯤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18개월짜리 군 복무도 지금까지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정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달라져야 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가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문명호=지금부터 제2주제 '남북언론인 생사확인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 발표자 도준호 명지대 초빙교수는 조선일보에서 부국장, 북한부장, 정치부 부국장, 통일안보문제 연구소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남북교류위원장을 맡으셨고 논설위원으로 남북문제를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토론을 해 주실 이애란 경인대학 교수는 전 북한과학기술위원회 품질감독원과 평화문제 연구원을 지냈습니다. 1997년 8월 16일 탈북, 10월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탈북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미국정부의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토론자 이태영 명지대 객원교수는 KOC국제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를 거친 언론인입니다. 중앙경제 올림픽취재본부장,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과 아시아체육기자연맹부회장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은 부친 되시는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길용 선생님도 납북 언론인으로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이십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와 주신 두 분은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분리해야"

▲도준호=제가 주제발표문을 쓰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6·25전쟁납북가족협의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미희씨를 만나고서 전쟁납북자 문제는 60년 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희씨는 아버지가 납북될 때 살았던 청량리 그 집에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찾아오면 집을 찾지 못하면 어떠할까 싶어서 이사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른바 유해부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해를 찾아 송환하는 데 우리는 60년 동안 전쟁납북자문제 납북언론인문제를 정식의제로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른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死地에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납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납북된 민간인들을 1956년부터 북한체제에 순응하도록 조직적으로 인간개조운동과 세뇌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대개 적응하기에 쉽지도 않고 적응한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치범수용소나 탄광이나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는 형편이었고 그분들의 자녀들도 이른바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은 전부 북한의 감시대상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拉北者 비공개 접촉 기구 설치를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 지상 중계

6면에서 이어집니다.

전쟁납북자문제는 그동안 정책에 소외됐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이산가족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으나 전쟁납북자문제는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2002년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와 주소 확인 문제라는 의제가 채택된 게 전쟁이 끝난 후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납북자란 말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나마 전쟁시기에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이 문제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과연 뭘까. 북한은 지금은 납북자 문제를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력은 굉장히 가중되고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국제환경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남한당국과의 협상을 혁명달성을 위한 물리적 힘 대신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태도를 누그려뜨린다든지 또 일관성 없게 하면 해결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정부의 일관된 원칙, 국내의 여론 환기, 국민적 단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북자문제 해결은 이산가족문제와 분리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납북자는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산가족은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인도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납북자송환과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독일의 선례에 따라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납북자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 당근을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근을 제공하는 방식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간기구를 설립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사 원칙을 끝까지 지켜서 그걸 해야 되고 또 납북자 가족들이 확인되면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확립해야할 것입니다.

대한언론인회가 이른바 납북언론인 문제를 주도 하고 있으니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재정지원을 받아 대한언론인회가 획기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주제 '납북언론인 생사확인되어야 한다' 토론장면.

▲문명호=도준호 위원께서 그동안 납북자들과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얼마나 잊고 있었으며 얼마나 소홀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해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 납북자송환과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고 주장하며 정부에 이 문제를 다룰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일본은 납북일본여성과 그 가족까지 데려와서 살고, 김정일의 사과까지 받아낸 것은 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발언 이해 어려워"

▲이애란=제가 남쪽에 와서 생활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천만 이산가족이 있고, 발제 하신 내용처럼 8만3천여 명의 비전투 민간인들이 납북되었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남쪽에 있는 가족들과 연계를 할 수 없고요. 남쪽 분들은 살기가 바빠서 그러는지 북쪽의 가족에 대해 거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고난행군시대 때 가장 굶주리는 계층은 이산가족 분들과 납북자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탄광, 산판, 산간오지에 추방되어 생활 조건이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 실향민을 만나,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와서 찾는다고 별 볼일 있겠느냐, 괜히 찾아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속수무책으로 계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실향민이나 납북자들을 찾을 생각조차 않고 있다면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국방비 1%만 인민생활에 돌린다면 잘 사는 인민이 될 수 있다. 폭탄 한 발 만드는데 황소 3000마리가 들어가고, 총알 하나 만드는데 닭이 몇 백 마리가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작년에 북한이 화폐개혁을 하면서 인민화폐를 100:1이라는 살인적인 비율로 바꿔주고, 또 일부는 1000:1로 바꿔주고 일부는 휴지 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제가 북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똑똑해져서 북한 돈은 일부만 갖고 나머지 돈은 생기면 무조건 달러나 엔화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달러나 엔화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정책에 의구심을 품고 있고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화폐개혁 때문에 지금 북한주민들은 죽을 고비에 들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은 박남기 재정부장을 총살했죠. 그것을 다 박남기 한 테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또 북한내부에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에서는 납북자나 실향민 가족들을 잘 만나게 안 해줍니다. 김정일은 남한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잘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납북자나 실향민 가족들은 북에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송금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외국은행을 평양에다 설립을 해 놓고 우리가 돈을 보낼 테니까 수수료 일부를 떼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줘라. 그래서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여 가족의 생계문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도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언급 않는데 어느 나라가 이것을 언급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투사들, 민주화운동가들은 다른 나라 인권은 걱정하고 그 나라로 달려가 돕고 하면서 왜 북한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드는데 제가 가끔은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의 발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전쟁 못합니다. 이번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전쟁이 터졌다면 김정일은 누구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 총입니까? 미국 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국방군이나 우리나라 누구가 그렇게 한맺힌 사연이 있어서 달려가서 죽이겠습니까. 미국 어느 병사가 김정일을 알기나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은 북한사람의 총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박수)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북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북한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김정일은 이 해결책을 어디서 찾느냐. 핵무기 개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국제적으로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납북자도 찾아야 되고 우리 실향민들 천만 명이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서서 우리 가족 어디 갔느냐? 우리가족 지금 뭐하고 있느냐? 신상을 공개해라. 찾아 달라.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릴 테니까 송금하면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설치해 달라.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문명호=어느 토론보다 실제적이고 직접 겪은 얘기를 해주셔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 중에 고난의 행군 때 가장 많이 굶어죽은 사람들이 납북자 또 국군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지 못한 얘기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보는데 우선 실향민 가족들 또 납북자 가족들이 북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얘기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납북자와 탈북자 자신이 북한 인권문제부터 자꾸 제기해야 우리 납북한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애란 교수께서는 납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한 안보태세까지 언급하셔서 정말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납북인사 문제 정부서 뒷짐"

▲이태영=저는 납북인사가족의 한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의 납북문제야 말로 어떤 피해 당사자 그 가족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족사적인 비극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언론 현역 퇴역 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좀더 진지하게 이해하고 깊이 의논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면으로 이어집니다.

'北人權' 문제 집중거론해야 할 때

'6·25와 한반도 안보' 대토론회 지상 중계

7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애란 교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남북문제를 초월해서 남북인사 생사확인이나 유해송환, 명예회복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서까지 우리가 탈북자와 남북자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고 한번 투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준호 위원께서 아주 빈틈없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반론이나 질문을 할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도준호 위원께서 남북배경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부르주아계급 우익인사들 지식층 반동분자'가 주된 대상이라고 설명하셨고 또 생존을 위해서 북한에 협조한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말씀 했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부분은 납북 이후에 저항이 불가능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여러 가족들의 증언들을 청취하면서 느낀 것은 월북자 납북자 논란을 떠나서라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월북자도 납북자에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또 '자진 월북인지 납북인지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지 않게' 라기 보다는 '다소' 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뮤지컬 '요덕스토리' 보셨습니까? 심각하고 절실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실정에 비춰보면 북한이 언론계의 영향력 있는 납북인사들을 중심으로 세뇌교육과 인간개조작업을 실시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족입장에서 분노하는 점은 지난번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무조건 보내면서 납북자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받아 내지 못한 점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상세하게 과정설명을 해주셨지만, '전쟁 중 자의에 반하여 북한으로 간 사람' 이거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또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뭐 이러한 표현으로 과거 십 수년 동안 특히 좌파들이 판치는 정권하에서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다는 점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정부는 '조국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 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6·25전쟁의 전사자들, 숨진 미국 병사들의 유해 찾기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던가? 국군포로는 물론이거니와 납북인사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족해체에 따른 또 다른 비극 입니다. 저희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께서 3년 전 미국NPC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 연설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6·25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빼앗긴 우리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빼앗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그 전쟁 또한 시작되었기 때문에 3중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세번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략) 남쪽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북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그분들에게는 더 더욱 사무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정권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살길을 제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중략) 세계 양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언론이 힘을 합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기 마련이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납북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사를 확인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 하려고 합니다.

토론자 · 이애란씨

토론자 · 이태영씨

개회식 진행 · 정운종씨

▲문명호=지금 두 분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질문이라기보다 직접 탈북하시고 직접 부친을 납북 당하신 가족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슴에 더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딱 세 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 통해 문제 제기를

▲황봉구=이애란 교수님, 국제여성상도 받으시고 지면에 많이 소개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탈북자를 과거에는 새터민이라고 했지요? "젊은 탈북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면 무조건 탈북자는 우리 국내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배제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이애란=네.

▲황봉구=그리고 '억양만 북한 억양이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도 인상에 남아 통일칼럼을 쓸 때 인용을 했었어요. 그런 것을 언론에서 정부쪽에 문제제기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애란=네 알겠습니다. 언론이란 것이 제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근래 와서 말 좀 해달라고 할 때 저는 그런 현실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내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꾸자꾸 말하게 되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 촉망되는 탈북자 후원

▲제재형=조금 전 납북자와 언론인, 문인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의로 갔으면 월북이고 타의로 갔으면 납북인데 우리가 말하는 납북자속에는 자의로 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일어난 김에 말씀드릴 것은 '영통포럼'이라는 사단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조국통일을 위한 포럼'이라고 해서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 땅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일꾼들을 양성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 방송 라디오에 나간 것을 보고 우리 언론인회 회원 중에 한 분이신 이지웅 회우께서 금년에 연세가 88세인데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서울광학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통포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탈북자 가운데 머리가 좋고 장래성이 있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해주면 몇 사람을 석사 박사 학위 까지 공부를 시키면서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애란 박사와 이태영 선생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천거하겠습니다.

본회서 결의문 채택했으면

▲송두빈=오늘 훌륭한 분들의 좋은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일회성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내일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고, 또한 6·25 60주년이 임박했으니까 대한언론인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문명호=개인적으로 송두빈 선배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독일 소설가 헤르탄 뮬러 여사가 '북한은 역사와 문명에서 하차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간관계상 발제 논문이나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준호=이태영 선생께서 '월북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부분에 대해서 다소 라는 표현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납북자 문제만 다뤘지만 사실 월북자들도 피해자입니다.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자들이 하나같이 이른바 남로당을 비롯해서 다 숙청당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기 남한에 있는 가족들도 월북자 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이라든지 그것도 앞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형 선배께서는 자의반 타의반은 잘못됐으니깐 고쳐라 지적했는데 저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6·25 때 서울을 북한군들이 점령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식량문제입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하고 북한군이 발행하는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행증을 발급받을 때는 이력서를 써내야 했지요. 말하자면 북한체제에 말을 듣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야말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북한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재단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명호=시의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대한언론인회와 홍원기 회장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토론을 하는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이혜복 원로 선배님, 입학수, 제재형, 신우식, 송두빈, 이순기, 남시욱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천안함 爆沈은 '용서못할 전쟁행위'

大韓言論人會 북한 소행 강력 규탄 성명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5월 20일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전쟁행위이므로 반드시 실질적 효과적으로 상응하는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은 이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全文

지난 3월 26일 국군 장병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이 같은 북한의 천안함 격침은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전쟁행위로서 반드시 단호하고도 실질적 효과적으로 상응하는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북한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북 억지력과 한미공조체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북한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 20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유엔군 6·25 참전 기념일' 만들자

긴급제언

지 갑 종

·본회 회우
·유엔참전국협회 회장

유엔헌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최초 시험 케이스로서 유엔 안보이사회의 합법적인 결의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를 응징코자 참전한 유엔군, 우리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국제평화와 자유 수호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고마움을 범국민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필자는 유엔군통합사령부가 창설된 7월 7일을 유엔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년 범정부적인 행사를 가질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유엔군참전기념탑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세워져 있지만 지금의 서울 양화대교, 예전에 제2한강교로 불리던 곳에 우뚝 솟아 있었던 유엔참전기념탑을 1981년 서울시가 기존 4차선 다리를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부숴버린 이후 복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유감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기 까지는 미국의 공로가 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 공산군 남침소식이 워싱턴 DC에 알려진 시간은 서울발 UP통신 25일 오전 9시경(워싱턴 시간으로 24일 오후 8시), 무치오 미국대사가 백악관에 보고한 시간은 서울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 26분(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 26분)이었다. 다음날 소집된 제1차 유엔안보이사회는 "북한군 남침은 유엔헌장에 대한 도전이며 침략행위이므로 즉각 38도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결의 한다. 뒤따라 소집된 백악관 안보회의는 미 해 공군의 북한군 격퇴 공격명령을 하달 했다. 한마디로 천군만마 백만원군을 얻은 셈이다.

1950년 6월 28일(현지 시간 6월 27일 오전 11시) 소집된 제2차 유엔안보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군사원조 제공을 권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국전선을 시찰차 오전10시 30분 수원비행장에 도착, 육로로 노량진 한강방어선을 답사, 전황을 살폈다. 참으로 긴박했던 상황이 눈에 선하다. 그 후 한국에 파병신청이 많아짐에 따라 제3차 유엔안보이사회는 1950년 7월 7일 이를 통솔 하는 통합사령부설치와 단일지휘권을 미국에 위촉할 것을 결의 하니 바로 유엔군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가 창설된 경위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육군 7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 그리고 해 공군을, 영국은 육군 2개 여단과 해 공군을, 호주는 육군 2개 여단과 해 공군을, 네덜란드는 육군 1개 대대를, 뉴질랜드는 육군 1개 연대를, 캐나다는 육군 1개 여단과 해 공군을, 프랑스는 육군 1개 대대와 해군을, 필리핀은 육군 1개 연대를, 터키는 육군 1개 연대를, 태국은 육군 1개 연대와 해군을, 남아연방은 공군 1개 전투 중대를, 그리스는 육군 1개 대대와 공군을, 벨기에는 육군 1개 대대를, 콜롬비아는 육군 1개 대대와 해군을, 에티오피아는 육군 1개 대대를, 룩셈부르크는 육군 1개 중대를 각각 한국에 보내어 3년 간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다.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의무대를 파견했다. 모두 21개국이 한국을 도운 것이다. 1957년 7월 24일 휴전이 되기까지 유엔군 희생자 40,896명에다 종군기자도 한규호 서울신문기자를 비롯, 18명이나 취재 중 목숨을 잃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국제평화와 자유 수호라는 명분만으로 한국을 도운 유엔군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이보다 배은망덕한 일은 없을 것이다.

"유머 감각 뛰어나면 장수"

5월 건강 포럼… 6월은 19일 열려

장미의 계절 5월 건강포럼이 지난달 15일 명동에 있는 이윤수 비뇨기과 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나온 나사렛대학교 교수인 김상근 박사는 '행복해야 장수 한다'란 제목으로 1시간여에 걸쳐 강의했다.

김상근 박사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따라서 행복은 성공이나 소유의 전리품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기술이자 능력" 이라면서 "그 행복이라는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 중심에 유머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바로 행복해 질수 있어야 장수한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2008년에 1일 평균 35명으로 1만2천858명이 자살했는데 그가운데 65세 이상의 자살자가 3천586명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205%나 급증했는데 자살이유로 제일 큰 원인은 외로움이 제1순위였다고 말하고 이 외로움은 커뮤니케이션 상대자가 없고 수다를 떨 사람이 없던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또 노년기에는 특히 사물을 볼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롭게 상황을 볼수 있는 능력(조망을 달리하는 기술)이 있어야한다며 103세의 일본인 쇼치 사브로 할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모두 먼저 보내고도 "고난은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에요. 고난을 농담으로 확 뒤집으면 살아가는 힘이 돼요"라며 "항상 웃으세요. 그러면 장수 합니다"라고 충고했다는 실화를 들려줬다.

김상근 박사

서경순 강사

김 박사는 이어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며 손주를 위해 옛날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또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즉 열 받지 않고 어려운 상황과 마주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정년과 더불어 인간관계가 95%는 정리가 된다며 혹시 자녀 결혼식에 올 사람이 안 온다든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안 오더라도 배신에 대한 분노를 버리고 "사람은 다 그런거야"라고 자위하라면서 어느 한 가지에 몰입 -예를 들어 남은 여생을, 또는 하고 싶었던 일에대해 책(자서전)을 쓴다든가-하는것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장 즐거울 때가 몰입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6월의 건강포럼은 19일 토요일 1시 50분 명동에 있는 이윤수 비뇨기과 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어르신의 건강한 성과 행복한 노후'로 서경순 (여) 인구보건복지협회 노인 성건강 강사가 맡는다.(이보길 편집위원 記)

특별기고

'韓·日 병합 무효 성명' 兩國의 온도차

"지식인 대거 참여" 서울 대대적 보도
日本선 朝日·東京신문등만 담담히 취급

하코다 테쓰야 (箱田哲也)
•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不義不當.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를 아사히(朝日)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로 찾아보았더니 올해 5월 11일자 조간(朝刊) 기사, 단1개만이 검색되었다. 이 전날,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된 '한국병합' 100년 일한(日韓)지식인 공동성명의 내용을 소개한 기사다. 공동성명에는 일한(日韓) 양국의 대표적 연구자나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등 양쪽에서 각각100명 이상이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쟁쟁한 인사들이 한국병합에 관하여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나도 서울에서 열린 발표식에 들렀다.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연구자들과 한국언론계 선배들도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계셔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양국인사 2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성명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발표식에는 많은 TV카메라가 설치되고, '기자석'이라고 표시된 2개의 테이블도 만석이었다. 늦게 도착한 나는 '입석(立席)'으로 앉을 수는 없었지만,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이를 들을 수 있어 발언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 발표식을 취재한 일본언론은 朝日新聞 기자인 나와 東京新聞 기자 단 두 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접수할 때 받았던 자료로 눈을 돌렸다. 한국측 지식인 '109명'이라고 쓰여 있는 명단을 보았을 때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안이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좌우이념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식인의 이름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같은 날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발표식에도 동료기자가 발길을 옮겼다. 일한 양국의 발표가 끝난 후, 동료기자에게 도쿄 발표식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도쿄에서 열린 것은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성명의 초안을 작성한 와다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외 몇 명이 앞에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미디어는 몇 명의 기자 뿐,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 기자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TV카메라도 대부분 한국 방송사 소속이었고 질문도 끝까지 한국인 기자에게서 나왔다. 나는 가끔씩 한국언론의 도쿄특파원들은 현장취재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이 날 만큼은 달랐던 것 같다.

다음 날 발행된 일한 양국의 신문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1면 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지는 일제히 크게 기사를 다루었고, 이에 대한 강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신문에서는 朝日新聞과 東京新聞 등이 전날에 있었던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형태로 보도했다.

아니, 사실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의 지면은 아니였지만, 일본미디어에서 가장 크게 이 이슈에 대해 보도한 것은 바로 産經新聞이었다. 1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파격적으로 국제면에 7단 통기사로 다루어졌다. 이 기사는 産經新聞 서울지국장의 '병합 100년 기념의 온도차'라는 칼럼이었다.

"이미 65년이 지난 1945년에 끝난 '병합'에 대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효냐 무효냐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효였다 하더라도 병합으로 인한 일본의 한국지배(35년)라는 역사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성명은 이것을 다시 일본정부에게 각인시켜 지금껏 묵었던 체증을 풀려는(?) 셈이었다" 며 지론을 보여줬다. 일한의 보도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인 대다수는 '왜 이제 와서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며 실감하지 못한다. 최근 일본에서 보이는 한국상(像)은 한류열풍을 비롯해 경제와 문화 스포츠 등 역동적이며 힘찬 발전적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일본보다도 한국에서는 '지식인'이 존경받고 있으며, 일본에서 서명했던 지식인은 "한국언론도 지적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좌파 혹은 진보적 문화인들이다. 즉 운동이나 성명을 선호하는 이른바 아사히(朝日), 이와나미(岩波)인"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보다는 일본에서 지식인들이 무언가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한국만큼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로 인한 영향도 크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한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한반도관(觀)에 차이는 있지만 나와 이 칼럼의 필자는 무척 사이가 좋다. 대선배에 대해서 사이가 좋다느니 하는 것은 대단한 실례지만,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이다.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이 칼럼을 '또 시작했다'고 웃고 끝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칼럼 전반 부분의 지적은 다양한 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일본 측에서 서명에 참여한 지식인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일본의 현실이다.

일한 관계에서 '미래지향'이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일본 신문에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가 커다란 미다시(제목)가 되어 등장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해서 제창된 일한 파트너십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최근들어 '미래지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일한 양국에게 듣기도 좋고 큰 반대도 나오지 않는 '편리한 말'이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 있는 참뜻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때문이다.

병합 100년에 발맞추어 나는 작년 여름부터 많은 기획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일본정계에는 '일본답지 않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여야당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자민당이 하야했다. '아시아 중시'를 강조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취임한 것도 기대를 한껏 고양시켰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터무니없이 높았다. 아마추어도(度)가 높은 民主黨 정권의 방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정과 외교 모든 면에서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외교에서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반환문제로 분규하고, 그 밖의 모든 외교현안이 착수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자신 오키나와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주일미군문제를 취재해 온 기자로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궁에 빠져 해결할 수 없는 채로 하토야마 정권이 임종을 맞을 것이라고 본다.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전부터 입에 달았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도 이제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춰버렸다. 더구나 야스쿠니(靖國)신사의 대체시설 건설이나 일본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천황 방한 등을 통해 일한(日韓)의 무거운 톱니바퀴를 돌리는 가시적인 성과는 이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도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혼네(本音·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겉모습)를 겸비하고, 조용하고 대담함이 결여되어 있는 일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매우 깊다고 생각한다. 투표라는 행동으로서 유권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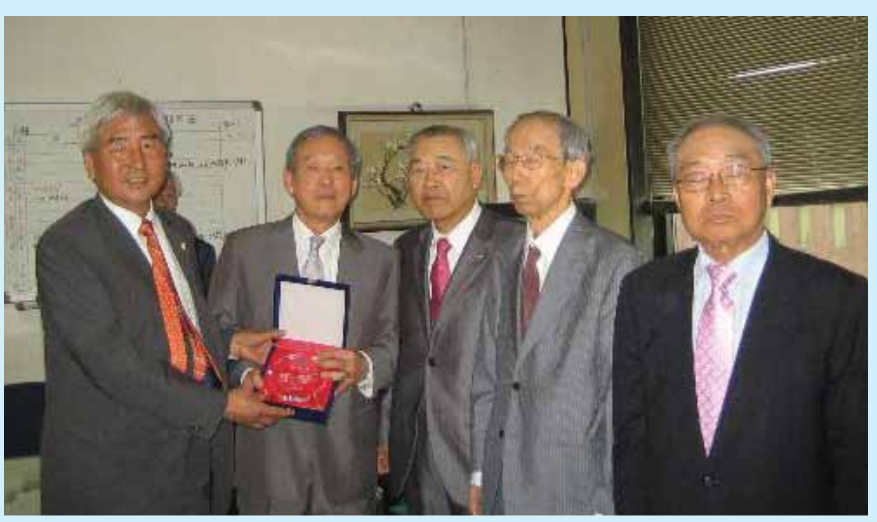
병합 100년인 올해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갔다. 하지만 양국 국민의 마음의 거리는, 101년째의 내년 이후에도 계속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일본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물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번 지식인공동성명의 취지도 조금이나마 일본 측에 전달될 지도 모르겠다.

오인환 전장관에 감사패

대한언론인회, 재임중 지원 기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장관 재임시 본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吳隣煥 전 공보처장관을 초청,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이혜복 고문을 비롯, 회장단 전원이 참석했다.

오인환 전 공보처장관은 한국일보에서 외신부 사회부 정치부장 편집국장 이사 겸 주필을 역임하고 정계에 진출, 민자당 정무담당특보 '제5대(1993.02.~1998.03) 공보처장관을 지냈으며 1993년 11월 재임시 퇴직 언론인 복지기금 10억 원을 본회에 배정할 수 있도록 힘쓴바 있다. 사진 좌로부터 홍원기 회장, 오인환 전 장관, 제재형, 이혜복, 신우식 고문.



時 論

종교의 政治개입 발언 심하다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4大江 사업 등에 편향적 시각 노출 政黨 만들어 국민 심판 받아야 마땅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종교계 일각에서 선거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편향적인 정치행각을 벌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의 봉은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했다.

가톨릭 주교회의가 지난 3월 12일 한창 진행 중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 한다"고 주장,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4월 26일 서울명동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미사를 열고 정부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이날부터 매일 저녁 미사를 연다고 했다. 이들은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고 뭇 생명을 죽게 만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공사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공사 강행에 더 이상 사제들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동성당에서 매일 시국미사가 열리는 것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처음이라고 각 언론은 보도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3월 25일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종교계 일각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물론 4대강 사업의 불가피성을 지지하거나 중립적 입장의 국민으로부터의 반론도 거셌다.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종교계 일각의 반대가 생태계 파괴, 환경 훼손이라는 단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편다는 것이다. 4대강 개발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정치 쟁점화한 사안이다.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찬반의사를 표명하는 건 국민 모두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정당 간에 선거의 주요 쟁점이 돼 있던 사안에 대해 종교계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반대운동을 하는 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정치행위이다. 명분이 어떠 하든 간에 중립적이어야 할 종교계가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현실 정치개입이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논거는 선거쟁점 사안인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시민 종교단체의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불법이라고 규정, 각 단체에 금지할 것을 통보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선관위는 종교단체의 경우 4대강 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홍보 책자 배부및 설명, 미사, 법회, 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 사례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톨릭 사제와 신도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반대운동을 이어갔다.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고라도 일부 종교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은 결국 또 하나의 국민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국민분열을 막아주고 화합을 이끌어야 할 종교가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 됐다.

지난 3월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안상수의원의 봉은사 외압설이 불거졌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외압 여부를 놓고 명진스님, 안 원내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간의 진실공방이 한동안 이어졌다. 종단내 문제에 중견 정치인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사안으로 비쳐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종교의 정치개입이라 한다면 이 사안은 정치의 종교에 대한 간섭 내지는 종교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안 원내대표의 발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정치의 종교 간섭 사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역사적으로 원시시대 이래 종교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특히 중세 유럽사회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가장 치열한 대결 시대였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권력과 교황권이 사사건건 대립했다. 서유럽에서 1천년 넘게 이어져 오던 정치와 종교의 밀착관계는 16세기 로크와 흄, 홉스 같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회의의 대상이 되고 정교분리의 도전이 시작됐다. 오늘 날 대부분의 나라는 정교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각 종교단체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종교도 국가나 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정교분리원칙은 국교 부인, 정치의 종교 중립, 종교의 정치 간섭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4대강 반대나 봉은사 사태는 모두 종교와 정치의 상호불간섭 및 중립성 준수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종교집단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정당을 설립하면 된다. 이 경우 종교정당은 종교의 자유가 아닌 참정권에 의한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란 보호 특혜 속에서 정치활동을 할 게 아니라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에 가입해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종교가 권력이 될 때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는가는 역사가 말해준다.

제 언

"名譽殿堂에 헌정하다"는 語不成

徐康和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曲言正語학회 대표

한글 전용으로 意味意識 空白化 顯彰 또는 宣揚으로 고쳐 써야

4월16일자 조선일보 社說面아랫단 광고에 '이명박 대통령께 호소...'라는 6段通 대광고가 났는데, 글월 첫머리에

#1). "지금 유래(由來) 없는 경기불황으로...."라고 했다.

08년 이래의 온세계景氣침체의 始源地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탓임은 初等학생도 다 알고있다. 어찌 유래(由來)가 없단 말이냐?

필시 여기의 '유래없는'은 '유례(類例)없는=짝이없는'의 뜻으로 잘못 썼음이 틀림 없으리라. 이런 바보化착오 原因은 바로 漢字를 退出시킨 죄값이다.

#2). 果川市에 과학박물관이 개관되었다고 보도되더니, 이윽고 어느 新聞紙上에 科技處 公告광고가 났다. 文面인즉

"박물관 구내(構內)에 '名譽의 殿堂'도 설치할 예정이며, 거기에다 과학발전을 위해 顯著히 공헌한 분을 헌정 하겠으니, 推薦해주십사"하는 요지의 광고였다.

도대체 명예전당은 무엇이고, 헌정한다니, 유공자에게 어떤 보답을 하겠다는 소리냐? 명색이 지식인으로 自他가 共認하는 필자도 헌정이 무엇인지 몇시간 궁리해봐도 釋然치 않다. 궁리하던나머지, 드디어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했던바, 당무자도 태연히 "유공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초상이나 이름을 올리는것 있잖습니까?"고 되묻는다.

"그럼 글자는 어떤자를 씁니까?"하고 다시 물으니, "바친다는 글자가 있답니다. 漢字글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한다. 뜻도 잘 모르면서 덩달아 썼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壽宴때에 長壽노인에게 祝壽로 올리는 술잔을 獻酬(헌수)라 하고, 神佛앞에 供物을 바치는것을 헌납(獻納) 헌상(獻上) 헌정(獻呈)이라고는 하지만, 명예전당에 이름이나 초상화를 갖다바친다는 것이 그有功人에게 어떤 利得이나 報答이 되느냐? 거기까지는 考慮도 안했으렷다.

아마도 헌정의 말뜻을 옳게바르게 공부못한 사람이 말 뜻도 잘 모른채, 끌어다 붙인 용사(用辭)가 아닌가 의심한다. 漢字퇴출(退出)로 의미 공백(空白)된 사조(思潮)의 죄값일까?. '有功者의 성명 초상 업적을 명예전당에 현창(顯彰) 또는 선양(宣揚)하겠다'로 修訂할것을 緊急動議한다.

'이명박 독트린'에 성원과 도전

신문시평

이 재 승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세종연구소 이사

보수·중도 紙 "불가피한 선택" 지지
좌파紙는 아직도 '햇볕정책' 예찬

남북한의 한반도가 6·25 전쟁 60주년을 앞두고 다시 터질듯이 긴장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5월24일 북(北)의 천안함 폭침이 밝혀지자 그에 대한 응징으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도발이다"고 규정하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인 억제원칙(Protective Deterrence)을 견지 할 것이며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대국민 담화형식으로 발표된 이대통령의 대북(對北)독트린(Doctrine·정책)은 사실상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군사적인 보복을 제외하고는 경제·교류협력의 중단, 외교·군사적 압력 등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제재를 다 동원했다 하겠다. 이대통령은 25일의 청와대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도 "한반도정세가 중요한 전환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안보수호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최고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선택이다.

천안함 폭침 대응책으로 지난 5월 27일 실시된 서해상의 해군 2함대 기동훈련〈사진 공동취재단〉

햇볕정책은 지고

진보·좌파세력들은 햇볕정책이 최선의 대북정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김대중·노무현 등 진보·좌파 대통령 10년집권동안에 북(北)의 대남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 햇볕정책이 북(北)을 개혁·개방체제로 이끄는 것보다는 퍼주기, 저자세 접근으로 봉노릇만 톡톡히 했다. 이기간동안의 지원규모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정상회담료로 지불한 5억달러를 비롯 쌀, 비료지원, 기타 민관 지원을 합하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돈의 상당부분이 핵 미사일개발 등 북한 군사력증강에 기여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연평해전등 서해안에서의 전함충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햇볕정책은 또한 북의 남(南)에 대한 오기와 오만을 잔뜩 조장해 놓은 것 같다.

이명박 독트린은 햇볕정책으로 왜곡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 양자관계를 상호체제존중, 호혜평등 상호주의의 원칙위에 발전적으로 재출발시키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대통령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고 대화의 출구를 열어 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천안함사태와 관련, 김정일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제재대상에서도 개성공단과 인도주의사업을 배제한 것은 나름대로의 계산된 배려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이에 앞서 북(北)이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합리적 요구다. 북(北)의 행태로 봐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뜻이 전해지자면 제재자체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이번제재도 나름대로 북(北)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어 국지적인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있다.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안보측면에서 △북한=주적(主敵)개념의 6년만의 부활△대북심리전 6년만의 재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실시 △팀스피리트 연습과 유사한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재개 방안검토 등 대북(對北)안보태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교역, 신규투자, 지원(영·유아 인도적지원 제외) 등을 중단하고 한국인의 방북금지(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제외), 북한선박의 한국영해·영공항해 금지 등을 조처했다.

북한=主敵 개념 부활

이에따른 북한측의 달러수입 감소는 연간 약 3억2천만 달러, 북한 재정 규모(34억달러)의 약 14.5%에 상당 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위탁 가공업 종사자도 최대 12만명 으로 추산, 실업의 부담도 클 것으로 보고있다. KDI는 경제전반에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선언(1988년)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예상대로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는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일절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철폐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중단 △남조선 선박, 항공기 들의 영해영공통과 전면 금지조치등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의 전면철폐 등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고 했다. 역(逆)이명박 독트린이라 보면 되겠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대변인은 이명박대통령의 5·24조치를 "모략극의 권모술수"라고 했고 북한군 전선중부지구 사령관은 "(확성기등) 심리전 수단을 없애버리기 위해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실시될 것이다"고도 했다.

북(北)은 아웅산테러(1983년), KAL 기폭파(1987년)사건때도 사과한 일이 없다. 이번에도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하고 조사관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이대통령의 김정일정권과의 대결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패할 수 없는 싸움이다. 역사의 향방이 걸려 있다. 역시 국민적 콘센서스와 국제공조체제가 긴요하다. 이명박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체제를 지켜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집권자의 책무만이 아니다. 국민적, 국가적 협력과 결속이 요구된다.

지도자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맞물려야 한다. 미국이 9·11 탈레반 테러사태때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의회의 여야당등 정치권과 국민들이 결속을 보였듯이 우리도 집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여 이념,계층,지역을 초월하여 힘을 모아줘야 한다.

그러나 서울은 워싱턴이 아니다. 이념과 정치적 대립이 안보에 우선하다. 6·2지방선거에 따른 '북풍(北風)' '노풍(盧風)' 등 정치바람탓에 초당적, 거국적이어야 할 천안함 사태대책은 결속된 국민의 힘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정권에 대한 응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로 중립적인 것을 제외하면 미 일 유럽 등 전통 우방국과의 협조와 협력이 긴밀하고 러시아와도 원만해 국내여론보다 국제공조체제가 기대된다.

안보는 초당적이어야

조선, 중앙, 동아등 보수신문들과 한국, 서울등의 중도지들도 하나 같이 이명박 독트린을 성원하고 있다. 국론 통일과 안보체제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은 "'북(北) 책임추궁'과 '안보관리 능력' 함께 보이라"(5월 25일사설)며 "대한민국의 결의와 각오에 대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앙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행동으로 하나될 때"(25일)라며 남남갈등을 이적(利敵)이라 했다. 동아는 "생각이 病든 사람들"(25일)에서 민주당측 합조단 조사위 신상철씨,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도올 김용옥 씨등을 거론하며 "··사실에 애써 눈감으면서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방해하는 병적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것이 정말 문제다. 이번에도 광우병사태때 처럼 사실 보이콧이 나타난다. 한편 한국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는 북한"이라며 "북(北)은 위기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은 "천안함 北소행, 분노를 넘어"(5월21일자 사설)에서 "국제공조 강화로 북(北) 시인, 사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한겨레는 "섣부르고 위험한 대북 초강경조치"(5월25일)라고 "우발적 충돌과 전쟁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균형잡힌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햇볕정책예찬론을 폈다. 역시 이명박정책에 정면 도전했다. 한편 경향은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한다는 제목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유의한 이 대통령의 대응원칙은 평가할 만하다"며 "북도 연일 불안만 조성말고 할 말이 있으면 반증 가능한 설명을 하는 게 우선이다"고 했다. 모처럼의 균형된 입장이다.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것은 정치권. 민주당 정세균대표는 북풍을 우려해서인지 범행자인 김정일정권은 비판하지 않고 정부의 안보무능만을 질타. 내각총사퇴등을 요구했다.

진보·좌파매체들과 같은 소리다. 한국정부 지지성명을 낸 미국하원 민주·공화양당의 반(反)테러 국제공조자세가 돋보인다. 천안함 폭침조사와 관련, 북의 연관성을 '날조'라고 했던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도 말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진보·좌파들이 신봉하는 국체(國體)가 뭣 인지 다시 새겨봐야겠다.

무책임 발언 무비판 전달 한심

천안함 北 책임 보다 정부 공격에 초점
SBS 검찰 로고 방송화면 실수 논란

방송시평

신 대 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 · 대구 MBC사장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것인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죽어도 믿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인가. 우리는 이번 천안함 피격 침몰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속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仁과 義 없는 정치인

맹자가 위나라 양혜왕을 만났다. 양혜왕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利)롭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맹자가 답하기를 "왕이시여, 하필이면 이로운 것을 말하십니까,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집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나 서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울 뿐입니다. 진실로 의(義)로움을 뒤로하고 이(利)로움을 앞세우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왕께서는 인과 의를 말씀하셔야 할 뿐입니다" 라고 충언을 했다 한다.

오늘 날의 정치인들에게서 인과 의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당정치인들의 천안함피격 이후 언동을 지켜 보노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이른바 좌파정당과 좌파시민 단체들의 행태를 다시 한번 살펴 보자. 처음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북한은 무관하다' 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드러났던 지난 5월 17일까지도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북한 무관' 쪽이었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17일 야당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신력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조사는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고, 민주당 천안함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효석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조사결과는 사건 당사자인 군이 주도하는 관제 조사로서 (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인 유시민 후보는 17일 평화방송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북한어뢰 공격설은 사실적 근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후보는 11일에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하나의 야당인 민노당은 어떠 했는가. 민노당 대표인 강기갑의원이 천안함 순국장병 영결식에서 고 민평기상사 어머니 윤청자(75)씨로부터 "의원님, 왜 북한에 퍼 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북 놈들이 죽였어요. 북한에 돈 주면 무기만 만들어서 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 이거(북한지원) 주장 하십니까. 이북 주란 말 그만 하세요. 피가 끓어요"라는 항의를 받는 장면은 전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똑똑히 지켜 보았다. 그자리에서 묵묵히 할머니의 항의를 듣고만 있던(시청자들이 보기엔 할머니의 항의에 대해 강대표가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대표는 4월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지방선거 타격만 우려

그러다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이번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북한책임 문제는 쏙 빼버리고 일제이 현정부의 국방, 안보부실 책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북한과 이번사건이 연결 되면 자신들이나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비난하지 못하고 그 책임이 경비를 소홀히 한 우리군에게 있다는 쪽으로 일제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들의 행태를 보면 가히 가관이다. 정세균대표는 5월21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의 말도 같은 방향이다. 그는 20일 저녁 경기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추궁에 대해 "북한이 그런줄 몰랐느냐"며, "이런 상대를 경비하라고 군이 있는 것인데 현 정부의 국방,안보를 못 믿겠다"고 말했고 '정부발표가 진실이라 해도' 란 단서를 달면서, "마치 무공을 세운것 처럼 자랑하듯 발표하느냐"며 안보대응책을 공격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꾸어 나갔다.

친북 반미 행태 벗어야

국민들 가운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집권 대안 정당으로서 야당에게 기대해 오던 것이 이런 실망스러운 행태였던가. 이런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실 전달만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행태는 또 무엇인가.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사학자 폴 데이비드의 한마디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다. "어떤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판명되고 난 후에도 그 길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야당이나 공영방송이나 간에 이젠 친북 반미에 치우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때가 된것이 아닌가.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허위로 드러난 지금도 아직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야당들은 이(利)에서 벗어나 의(義)로 돌아와 줄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뒤늦게 사과 해프닝

검찰개혁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요즘, 1970년 정인숙사건을 취재 보도했던 SBSTV가 작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오히려 SBS의 실수가 잘된듯한 반응이어서,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어떤 존재였던가를 집작케 하고 있다. SBS는 지난3월20일 밤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네티즌들이 검찰을 비아냥대며 만든 '패러디 로고'를 검찰의 로고로 잘못 알고 방송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알고 사과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SBS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1970년 정인숙사건당시 정씨를 죽인 범인은 검찰의 당시 발표와는 달리 친오빠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제는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방송화면에 사용된 검찰로고였던것. 문제의 로고는 검찰의 로고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네티즌이 검찰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삼질하고 도끼와 망치로 폭행을 가한다는 의미로 삼과 도끼 망치를 늘어 놓은 패러디한 마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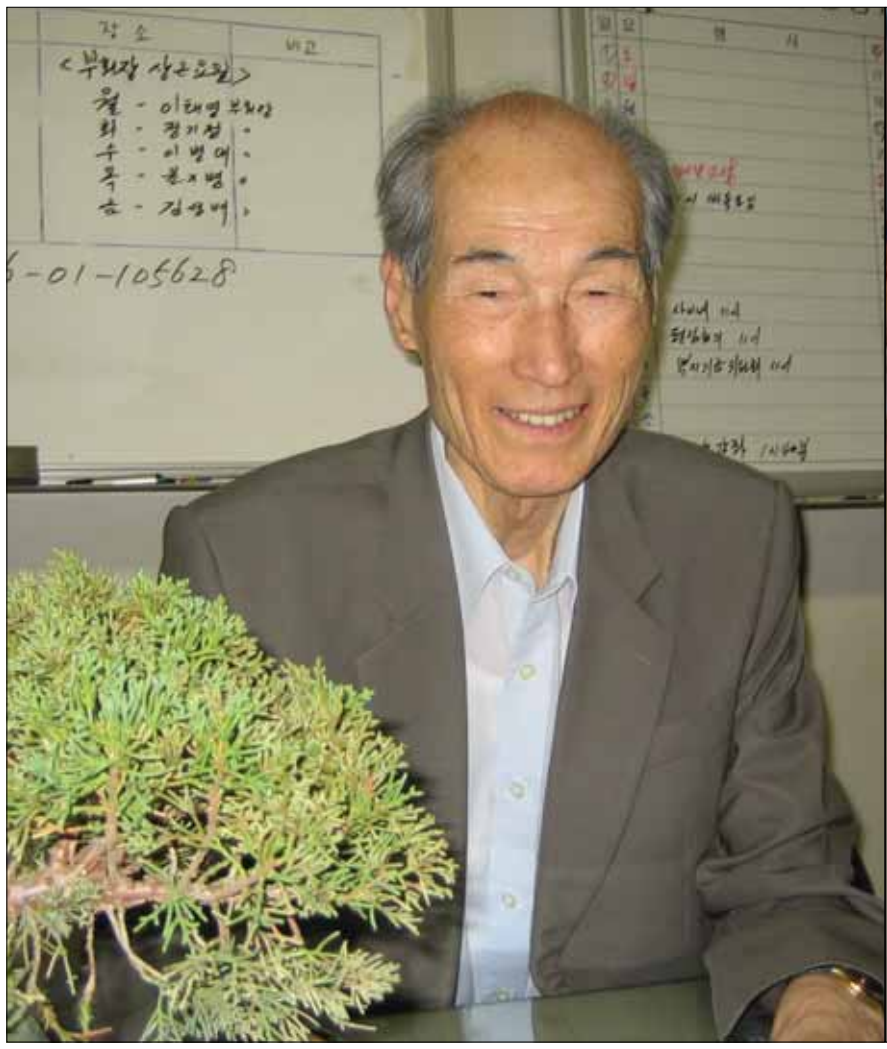
이를 본 시청자들은 SBS게시판에 'SBS를 새로 보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제작진은 21일 밤에야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확인 결과 검찰의 로고를 사용해 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검찰로고 이미지 중에서 잘못된 로고를 사용해 방송화면을 만들었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등을 통해 '으~~ 응 알았어!' '제대로 했구먼...' '로고가 멋지다...로고만 봐도 딱 알겠다. 떡검의 행태를' 'SBS가 고의건 실수로 했건 잘했다, 이 로고로 사용 해라 지금시기에 딱 맞다' 등등 최근 사면 초가에 몰린 검찰을 비아냥하며 오히려 실수를 저지른 SBS를 칭찬하는 의견 일색으로 도배하고 있어 최근 스폰서검사 사태 이후 추락 일로에 있는 검찰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한글 사랑 나랏말 다듬기… "지금도 엄청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3>

회우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정재도 회우(왼쪽)와 자택 서재에서 자료 정리에 몰두하고 있는 정 회우.

우리말 지킴이 외길… 가려진 말 찾고 아름다
밤낮없이 자료 정리… "생전에 다 못끝낼 것

불타는 열정 꺼질 줄 몰라

정재도 회우와의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 내가 정 회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나이가 여든 여섯이며 교열기자 생활을 오래했고 한글 사랑이 남다르다는 정도였다.

"요즘 어떻게 소일하십니까?"라는 일상적인 인사말을 드리자 전화 저편에서 카랑카랑한 의외의 답변이 왔다.

"저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이 바빠요. 가려진 우리말 찾아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새로 만드는 일도 하고 있지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에 순간 혼란스럽기도 했다. 여든 여섯의 나이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만난 정재도 회우는 두말이 필요없는 선비 모습 그대로 였다. 옷차림과 걸려있는 동양화 등 집안 분위기도 마찬가지였고 서재는 온갖 사전류로 둘러싸여 있었다.

거실에서 마주한 정 회우는 지금 우리 국어사전에서 한자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며 우리말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바른 우리말을 위해 바로잡고 찾아야 할 일이 태산이라고 '태산' 같은 걱정을 털어 놓는다.

우리 말 사전인데도 한자말은 안 쓰이는 것, 못 쓰는 것, 거짓말까지 많은 반면에 우리말은 쓰이는 말도 없는 말이 너무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비집이나 푸른하늘 같은 우리말도 우리말 사전에서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한다. 반면에 같은 뜻의 창공(蒼空)이나 창천(蒼天). 청천(靑天), 벽공(碧空), 벽천(碧天) 같은 한자말은 버젓이 비슷한 어휘까지도 우리말 사전에서 당당하게 20개쯤이나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면서 우리말을 경시하는 풍조가 반영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자말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싣고 우리말은 있는 것도 싣지 않고 한자말로 둔갑까지 시켰으며 그 후 여러 가지 사전이 나왔지만 맹목적으로 깊은 연구 없이 그 사전을 따랐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사전을 한자말 30%로 낮춰 바로잡아야 하고 쓰이는 우리말을 최대한 살리는 정말 값진 실용 우리말 사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재도 회우의 꿈이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팔순을 훌쩍 넘긴 정재도 회우는 새벽 1시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갖가지 사전과 고전(古典)을 넘나들며 가려진 우리말 찾기와 잘못된 말 바로잡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정회우는 새벽이어야 조용하고 전화도 안 오고 영감도 떠오르고 해서 일의 진도가 잘 나가지만 낮에는 일이 안 된다고 한다.

한글의 혼으로 태어나고 자랐다

정재도 회우의 삶은 한마디로 한글과의 연애, 사랑, 결혼 그리고 동거동락(同居同樂)과 헌신이다.

정 회우는 당시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언문을 깨쳤다고 한다. 누구한테 배운 기억도 없는데 마을 동각(洞閣) 노인들에게 '류충렬뎐' '됴웅뎐' 등 언문소설을 읽어 주며 귀여움을 받곤 했다고 한다.

광주사범에 다닐 때는 조퇴하고 충장로에 있는 헌책방인 삼복서점(三福書店)에서 언문으로 된 헌책을 뒤져 탐독했다. 언문과의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들키면 사상범으로 몰리는데 한글이 지켜 준 것 같다. 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 하던 중 해방이 되자 정 회우는 뛰어난 한글 실력으로 유명해졌다.

1999년 10월 9일, 국어심의회 심의위원 30년 근속 등 국어 발전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았다.

정 회우는 당시 호남신문 사장이던 노산 이은상 선생을 만나 1947년 22살의 나이에 호남신문 교정기자로 언론계

난 일을 하고 있다”

초대석 **정재도**

- 전 호남신문 교정부장
- 전 조선일보 소년조선일보 편집위원 · 주간
- 한말글 연구회장

인터뷰 글 · 사진 / 호천웅(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사운 말 만들어 같아 안타까워”

에 투신했다.

그리고 교정부장의 일을 하던 1953년에 다섯살 연하의 이영배여사와 결혼한다.

혼담이 진행되던 중 친구들이 짓궂게 정 부장은 이미 결혼했으며 그 애인은 한글이라는 농담을 해서 이 여사를 놀리기도 했다고 한다.

사모님에게 평생 한글과 연애하고 한글 연구에만 빠졌으며 요즘도 새벽마다 사전만 뒤지는 정 회우가 못마땅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등학교 교사출신인 사모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 괜찮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서재에 성경책이 눈에 뜨이기에 교회에 나가시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은 열심이지만 본인은 아니라며 덧붙이는 말이 재미있었다.

“집사람이 보채서 한때 교회에 가봤어요. 그런데 목사 설교를 들을 때도 한글과 사전 생각이 나고 영감이 떠오르면 설교 듣기를 중단하고 메모를 해야 했어요. 목사님과 상담했더니 ‘그 일 끝내시면 꼭 교회에 나오셔야 해요’” 라며 교회 불참을 허락했다고 가벼운 미소를 흘리는 정 회우의 모습이 천진스러웠다.

정 회우는 한글학회 사전편집실 편찬원, 조선일보 소년조선 편집위원 주간, 한글학회 한글맞춤법 수정위원, 땅이름학회 회장, 한말글 연구회장 등 언론과 한글 연구기관과 단체에서 우리말 사랑에 오로지 헌신하며 열정을 불태웠고 지금도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 수여하는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되고, 한국어문기자협회 어문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정 회우는 외아들인 홍익대 컴퓨터공학과 정균락 교수와 세 딸을 두었으며 모두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하면서 잘 살고 있어 기쁘며 8명의 손자·외손녀들도 자랑스럽게 성장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건강도 나이에 비해 웬만한 편이다. 다만 20여 년 전 과로로 가벼운 뇌졸중이 와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다고 한다.

요즘에도 거의 매일 외출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 한글학회에는 한 번 씩은 들르는 편이고 사범학교 동창이나 어문기자 관련 모임 등 나들이 할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한다.

하늘공원으로 산책 나가는 일도 거의 일상화됐다고 한다.

올바른 사전 보고 싶은게 소망

모든 일이 다 괜찮은 정 회우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기는 하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말 연구의 마무리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다.

올바른 우리말 사전의 탄생을 보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정 회우는 7년째 ‘가려진 한말과 한말 도로찾기’ 자료 모으기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말과 중국어 일본어 사전을 섭렵하고 목민심서 등 조선시대 각종 문헌 500여 가지를 넘나들며 3만장의 낱말카드를 만들었다.

앞으로 17만장 정도는 돼야 완성될 것이며 그러자면 30년 남짓은 걸려야 할 텐데 나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안타깝다는 정 회우다.

더구나 우리말을 바로 알고 가려진 옛말을 바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말 뿐만 아니라 한자말과 일본어에 대한 소양을 갖춰야 하고 그런 인재들 5,6명이 5년 안에 이 일을 끝내야 하는데, 그런일들이 쉽지 않은 현실도 한 걱정이다.

취재가 끝난 뒤에 정 회우가 전화로 연구실적의 구체적인 실례(實例)를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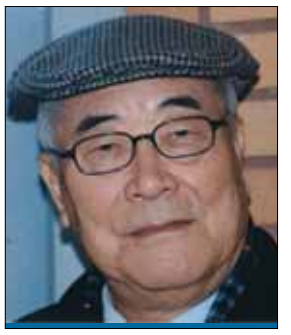
가려진 우리말 가운데 다시 찾은 말로는 ‘葛吾蕪理(갈나무리)’와 ‘迷藏(장님놀이)’들이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찾아낸 ‘갈라물이’는 전답을 매매했을 때 매매당사자 쌍방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며 학원사의 고사성어 사전에서 찾아낸 ‘장님놀이’는 술래잡기와 비슷하나 눈을 가리고 술래가 상대를 찾는 놀이라는 말이다.

정 회우가 만든 우리말의 예(例) 중 하나가 ‘나라갈피’다.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어름이란 갈피의 뜻을 살려 국경(國境)을 풀어쓰는 말로 적절해 보였다.

정 회우가 필생의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우리말 연구가 잊히지 않고 나라와 사회의 관심을 얻어 그 ‘엄청난 일’이 정말로 엄청난 결실을 얻기를 기대한다.

金春連의 술 이야기 ⑫



맥주 만세 (下)

연극인 이해랑(李海浪 · 작고)씨는 아주 독특한 맥주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는 어떤 술자리에 가서든 맥주 이외에는 마시지 않았다. 술-하면 맥주였다.

그것도 ○○맥주만 마셨다. 다른 맥주는 결코 마시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유니크한 것은, 여러병을 한꺼번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한병씩 주문했다.

그 한병이 끝나면 그때가서 또 한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섯병을 마시든 열병을 마시든 반드시 한병씩 따로 시켜 마셨다.

그의 변함없는 습성이었다. (연극인 金聲玉 증언)

이처럼 독특한 주법 이었다. ○○맥주만 고집한다. 그것도 그의 음주 개성이다.

세상에 어디 맥주가 한두 종류인가. 세계가 온통 맥주천하인데….

대표적인 것이 맥주 대국 미국의 얼굴 버드와이저. 전세계에서 판매되지 않는 곳이 없다.

버드와이저 한곳의 연간 생산량은 1,000만kl, 전세계 맥주생산량의 8.5%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총생산량의 7배에 달하는 양이다.

하이네켄은 네덜란드산. 1864년에 설립한 세계2위의 맥주회사. 파란병의 하이네켄을 누구 한번 안마셔 본 사람 있을까.

칼스버그 덴마크산. 1801에 창립된 회사. 칼스버그는 호프를 약간 많이 첨가, 그 향미가 진한 맥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상륙, 한때 기세를 올렸으나 라이트맥주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한 맥주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독일맥주다.

맥주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독일은 버드와이저나 하이네킨 그리고 칼스버그를 눈여겨 보지를 않는다.

그러나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표브랜드를 세계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전국에 퍼져있는 1,800여개의 맥주공장 탓이다.

제각각 맛이 다르고, 제각각 스타일이 다른 맥주가 쏟아져 나오니 큰 맥주회사가 설 자리가 없다.

각지방마다, 각기 나름대로 특색을 갖춘 맥주가 나오고, 고장마다 규모가 작은 맥주공장이 있어 음주가들의 기호에 맞는 술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하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맥주 순수령’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 두말이 있을 수 없다.

어쨌든 독일은 맥주의 종주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연극인 이해랑씨처럼 “누가 뭐라든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내식대로 마시겠다”는 데야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맥주 문화권(文化圈)도 각 나라의 양조사에 따라 같을 수가 없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스칸디나비아 제국….

이것은 하나의 맥주의 드라마이기도 하다. 상쾌하고 신선한 맥주를 목으로 넘기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맥주의 노화방지(老化防止)다. 맥주는 만들어지고 시중에 출하되었을때, 빨리 마셔야 한다. 맥주는 다른 술과 달리 오래두면 맛이 변한다.

제조, 출하, 유통 등 복잡한 시스템과 보관 방법 등…. 그 하나라도 소홀해졌을땐 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술에 와닿는 거품, 꿀꺽꿀꺽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맥주의 신선함. 게다가 기름끼가 약간 젖어있는 치즈, 땅콩, 소시지 등등을 씹으며 음미하는 맥주의 향미….

정지용의 시였던가, “그것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맥주 만세다.

(사)소비자시민모임에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연을 닮은
건강한 기업
마니커
경기도지사 인증
1+등급
자연과 인간이 꿈꾸는 풍요로운 내일
이것이 곧 마니커의 경영철학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 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자연 마니커는 자연의 소중함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합리적 경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까다롭게 생산되는 100% 순수 국내산 닭고기 브랜드 - 마니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 자연을 닮은 제품을 만듭니다
닭고기는 마니커
주식회사 마니커
http://www.maniker.co.kr

진보매체 의혹제기 - 초점 흐리기 심했다

천안함 爆沈 방송-일간지 보도 모니터링(자료 제공-공정언론시민연대)

1.배 경

하나의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계층, 계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표출한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또 필수불가결한 절차이자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들의 통일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안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안보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의혹제기, 초점흐리기, 피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가해자에 대한 결과적 옹호 등의 비상식적인 보도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했던 금강산 관광객 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이나 2002년 서해교전 당시의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공언련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를 분석하고 일부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촉구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관련 방송3사, 5개 종합일간지 모니터링 결과

가. 방송3사 모니터링 결과

천안함에 대한 침몰원인으로 방송3사(KBS, MBC, SBS) 모두 외부 충격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두었다. 그러나 KBS와 SBS가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로 각각 34%와 27%의 보도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MBC는 13%만이 북한공격으로 보도했다. MBC는 KBS와 SBS에 비해 자체결함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북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적하고 있다. MBC는 자체결함을 북한공격보다 더 많이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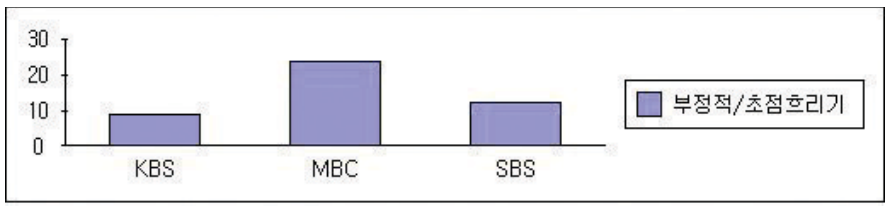
대응방안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KBS가 91%의 비율로 외부(북한)공격이라는 1차 결과 하에 대응방안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SBS가 그 뒤를 이은 88%의 비율로, MBC는 76%의 비율로 대응방안 등을 보도하고 있다. MBC는 외부(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도함에 있어 방송 3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나. 5개 일간지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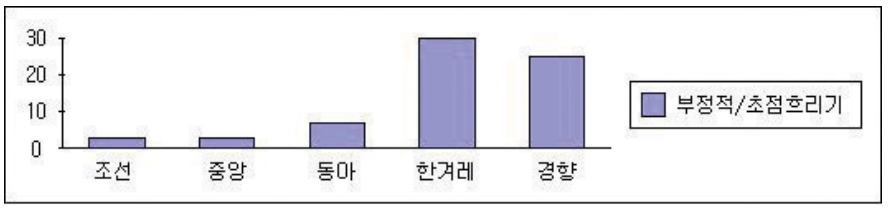
보수매체들은 북한공격에 의한 침몰(47%)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 진보매체들은 자체결함(31%)을 침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도하였다.

북한공격이나 외부충격이 천안한 침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한 보수매체의 경우 자연스럽게 외부(북한) 공격에 대한 올바른 대응 중심으로 보도의 내용이 진행되었으나 자체결함을 침몰의 제 1원인으로 지목했던 진보매체의 경우 외부(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을 71%비율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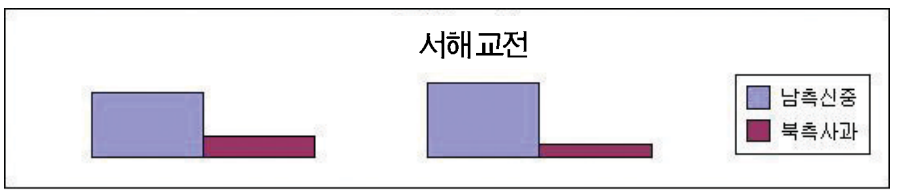
다양한 입장을 소개해야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제외하고 사설·칼럼만 분석해 보면 더욱 당혹스러운 결과에 직면한다. 한겨레신문은 단 9%만이 정당한 대응방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며 91%가 대응에 대해 부정적이다. 경향신문은 한겨레보다 낮은 수준이나 역시 공격이나 테러 행위에 대한 대응모색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었다.



외부(북한)공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보도비율.



외부(북한)공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보도비율



서해교전

故 박왕자 사건

천안함 사건

가해자보다 피해자 책임추궁에 초점 MBC 침몰 원인 자체 결함에 더 비중

3. 결론(총평)

외부(북한)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태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안보문제이다. 다른 사회적 사안과 달리 안보문제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공통되고 중대한 이해관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존중되는 각 언론매체의 편집성향은 안보에 기여하고 외부공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범주 내에서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수용된다.

우리는 광우병 사태에서 이 화인이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인지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MBC등의 방송은 초기 정보 전달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초기 정보가 잘못 되었을 경우 그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통해 정보의 교정작업을 해야 한다. 자체결함을 가장 많이 거론했던 MBC에서 이런 교정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공격에 대한 대응보도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MBC는 천안함사건 당시 노조파업 중이었으나 그럼에도 천안함 취재 인력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계속 취재토록 한다고 밝혔으나 외부공격에 의한 폭발이라는 1차 발표이후부터는 무슨 이유여서인지 그 인력마저도 철수하고 노조파업에 동참시켜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할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초기 원인진단이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해 군당국의 비일관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이는 군 당국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의 진보매체들은 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나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이 논란의 여지없는 외부공격행위에 대해서도 그 공격행위를 변론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극의 원인을 외부공격자에게 찾기보다 우리 군이나 어부, 피격사건의 경우 현대나 박왕자씨 개인책임에서 찾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보저해 의식, 인권파괴식 보도태도는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관련 보도에서 더욱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1)제2차 서해교전 대응 보도

한겨레 : 남측 신중대응 등 75%(6회) / 북측사과 등 25%(2회)

경 향 : 남측 신중대응 등 86%(6회) / 북측사과 등 14%(1회)

2)故 박왕자씨 사건 대응 보도

한겨레 : 남측 신중대응 등 64%(7회) / 북측 사과 등 36%(4회)

경 향 : 남측 신중대응 등 62%(8회) / 북측 사과 등 38% (5회)

3)천안함 사건 대응 보도

한겨레 : 남측 신중대응 등 91%(21회) / 북측사과 등 9%(2회)

경 향 : 남측 신중대응 등 77% (8회) / 북측사과 등 23%(4회)

한겨레와 경향의 사실관계 이탈, 자기교정능력의 상실, 외부공격자에 대한 물타기식 보도의 본질은 외부공격자에 대한 옹호이며,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교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보도는 인터넷 망을 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는 외부공격자의 목표 달성에 의도하지 않게 기여한다.

MBC, 한겨레, 경향은 외부공격자와의 춤을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보도를 해야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진보매체가 사라진 미래 대한민국의 여론다양성은 위태롭다. 한겨레와 경향은 자기 교정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진보매체로 자리매김 하길 촉구하고 MBC 또한 자기교정에 충실함과 함께 아울러 일관성과 신중성 있는 모습으로 다시금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해본다.

정리=이동훈<공정언론 시민연대정책실장>

宣祖와 동서당쟁과 壬辰倭亂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나라가 또다시 어지럽다. 천안함 사건으로 안보가 위태로운데 여야간의 정쟁(政爭)은 도를 넘고 있다. 임진왜란 직전 동서 당쟁의 심화가 요즘 좌우 대립과 비슷하다. 이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수록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지난 5월 27일(음력 4월 14일)은 428년 전인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다. 또 6월 1일은 곽재우(郭再祐)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간유격대인 의병을 일으킨 날이다. 18일은 이순신(李舜臣)이 첫 싸움인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날이다. 25일은 6·25동란이 일어난 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안함사건으로 국운이 기로에 서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화됐다. 나라의 형편이 왕조시대와는 다르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다. 특히 유비무환의 교훈을 망각함으로써 불러온 국난의 위기가 그렇다.

임진왜란 당시 국왕 선조(宣祖)는 백성과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면서도 어제는 동인, 오늘은 서인의 손을 들어주며 당쟁을 자신의 왕권안보에 악용했다. 또한 백성의 신망이 높은 장수들을 잠재적 라이벌로 의심하고 시기하여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을 죽이고, 이순신과 곽재우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러한 엽기적 처사는 이적행위와 다름없었다. 전쟁의 위험이 조금만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상식인데 선조는 일본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온 뒤 전쟁이 있을 것 같다는 동인 황윤길(黃允吉)의 보고를 무시하고 서인 김성일(金誠一)의 보고를 수용함으로써 무비유환(無備有患)의 대재앙을 당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과 명나라를 치려는 야욕은 자신의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주겠다는 과대망상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오랜 내전으로 단련된 수십만 군사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또다시 내전이 벌어질지 몰랐다. 저마다 칼을 찬 수십만 명의 사무라이가 하루아침에 백수건달이 되어 나라 안 곳곳을 휩쓸고 다닌다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시선을 해외로 돌려 조선과 명나라 정복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실천에 옮기려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것은 선조 23년(1590) 3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이들은 이듬해 3월에 귀국했다.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선조가 일본의 사정을 묻자 황윤길은, "수길의 안광이 빛나고, 일본이 병선을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 김성일은 "수길의 눈이 쥐눈과 같고, 신은 그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상반된 보고를 했다. 같은 동인인 좌의정 유성룡이 그래도 미심쩍어 어전에서 물러난 뒤 김성일에게 물었다. "그대가 황윤길과 다르게 말하는데 그러다가 만일 왜가 쳐들어오면 어쩌려는가?" 김성일이 대답했다. "저도 어찌 왜가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너무 중대하여 모두 놀라고 당황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주변 정세에 눈멀고 '태평성대'에 빠진 선조는 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전쟁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그토록 무지하고 무능했다. 이순신과 이율곡(李栗谷), 서산대사(西山大師)처럼 장차 전쟁이 있을 것을 내다본 이들은 극소수였다.

임진년 4월 14일, 왜군은 부산포에 상륙했다. 백성들 몰래 도성을 버리고 피란 가던 선조는 개성에서 백성들의 욕설과 돌팔매질까지 당했으니 그는 이미 국왕도 아니고, 그런 정부는 정부도 아니었다.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국방력을 약화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핏하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한 것처럼 선조는 재위 중 10여 차례에 걸쳐 "임금 노릇 못해먹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양위극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물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원맨쇼에 불과했다.

천안함사건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북한에 퍼주는 비굴한 짓으로 넘어갈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이미 그럴 때가 지났다.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밀리면 그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지도자는 강력하고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극단적 편가르기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망국의 위기를 초래했던 선조, 백성들로부터 멸시당하던 선조와 같은 못난 국왕의 무능한 리더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역사의 준엄하고 통렬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잊지못할 그때 그일들

李洛善 씨와의 인연

정 준 모
·본회 회우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6·25전쟁 종군기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어느정도 틀이잡혀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도미한때라 청와대 비서실은 모처럼 한가함을 즐기고 있었다.

부산일보 金鍾信기자를 불러내어 李洛善소령이 이사한 하숙집을 방문했다. 화신백화점 뒤편 양옥집이었다.

방한칸에 꽤 넓은 거실로 당시로서는 호화롭게 여겨졌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麻浦 뒷골목 볼품없는 하숙집 생활, 그것마저 한두달 하숙비를 내지 못하는 신세였는데.

李소령은 우리를 환영하면서 최고회의 의장이 없는 틈을 타서 일본을 다녀왔노라고 했다.

돈있는 교포의 대접을 톡톡히 받았던 모양이다.

SONY 스테레오 전축을 자랑하며 '게이샤' 왈츠를 틀었다. 쿵짝 쿵짝 노래는 신나게 울려 퍼졌다. 그 당시 일본 전국에 크게 유행한 노래였다.

이 전축도 그 교포가 사주었고, 金浦공항에서는 미리 손을 쓴 덕에 세관도 프리패스였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초라한 육군소령에서 천하를 잡았으니 우쭐하고 빼기고도 싶었겠지. 그때 나이 35세 전후이니 이거 보라고도 싶었겠지.

듣다가 화가 치밀었다.

"이 지랄 할라고 혁명했나-"

내 입에서는 투박한 경상도 말씨로 험한 말들이 쏟아졌다.

일순 거실 분위기는 싸늘해 졌다. 나는 일어서면서 최고회의 의장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

李소령은 굳어진 얼굴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큰길로 나오자 金鍾信씨가 "정형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놈은 한번 혼을 내주어야 해요"

그날은 이것으로 끝이났다.

서울신문에서 신아일보로 옮긴후 어느해 朴대통령 생신 청와대 출입기자 오찬회석상에서 대통령이 내 안부를 물었다는 일화가 張基鳳사장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張사장은 나를 불러 그분 잘 아느냐고 물어서 일개신문 기자가 어찌 국가원수를 알겠느냐고 능청을 떨었다. 그후 張사장은 동향인 李洛善 상공부장관을 찾아가서 나를 떠보았을때 '각하가 아주 좋아하실거라'며 적극 추천했다는 전말을 그 후에 알게되어 고맙게 생각했다.

李洛善 상공부장관은 건설부장관으로 옮겨가고 세월이 흘러 朴대통령시해사건이 터지고 국제상사 상임고문으로 있을때 그를 찾아갔다.

한풀 꺾였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 갈 수 있었다.

긴세월동안의 안부가 오가고, 그런데 어쩐지 안색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다.

폐암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한쪽 폐를 들어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달뒤 다시 찾아갔다.

대화하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아주 깊게 빨아들이고 깊게 뿜어내는 골초 솜씨가 아닌가.

나는 이미 40대 초반에 어렵게 담배를 끊었었다.

"아니, 하나 남은 폐 마저 들어 낼 수는 없지 않소"

이것만은 죽어도 끊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 신문에 부고가 났다. 아까운 친구를 또하나 잃었구나 싶었다.

문상은 하지 않았다.

박정진 회우 '굿으로 보는 백남준…'

박 정진 회우(한양대겸임교수·전 세계일보 논설위원)가 '굿으로 보는 백남준 비디오아트 읽기'라는 책을 냈다. 인문학적 글쓰기에 빠져 백여 권의 책을 낸 바 있는 그는 이번에 '비디오아트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백남준(Paik Nam June·1932~2006)의 비디오아트에 대한 한국미학적 분석을 감행함으로써 백남준 예술의 주체적 분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그가 제창한 예술인류학에 의해 수행됐다.

박 회우는 이번에 한국 샤머니즘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굿'이라는 개념으로 백남준 예술의 심층과 무의식-의식을 종횡무진 휘저으며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굿으로 보는 백남준 비디오아트'는 백남준을 한국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를 배출한 한국의 체면을 세우게 됐다.

그동안 백남준에 대한 비평은 주로 서양 미학적 혹은 철학적 해석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현대미술의 오브제, 혹은 퍼포먼스, 앗상브라주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박 회우는 '굿'이라는 개념을 미술비평의 용어로 정착시킴으로써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백남준은 한국인의 DNA를 타고났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라고 공부하였지만 그에 대한 한국미학, 한국철학의 입장에서 행해진 본격적인 해석은 드물었다. 이 같은 부족을 메우고, 서양인들에게도 보다 더 백남준의 진면목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은 씌어졌다.

이 책은 크게 예술인류학의 소개와 함께 백남준 예술의 발전과 개념의 정리, 작품에 대한 해석, 그가 왜 역사적인 아티스트인가를 증명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거지처럼 살다간 백남준의 일생에 대해, 그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 부족하나마 조명을 하고 있다. 그의 예술적 성취는 그의 재벌을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남준은 한국이 낳은 20세기와 21세기를 걸친 세계적 아티스트이다. '비디오아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름에서도 그의 업적과 역사성, 천재성,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특히 샤머니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모든 인간은 무당이다"라는 화두와 함께 백남준의 의식의 지도라고 할수 있는 '데콜라주 바다의 플럭서스 섬'을 처음으로 해독하는 성의를 보였다.

한편 백남준에 있어서 음악과 미술의 상호소통과 그것이 비디오아트의 탄생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동양문화적 특성과 문명적 관점에서 해석을 처음 시도하였다. 그래서 한국인도 한국인이지만 특히 서양의 미술평론가, 미학자, 그리고 철학자를 위해서 서술된 곳이 많다.

저자는 이를 더욱더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 질 들뢰즈의 관점에서 백남준 미술을 바라보는 책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저자의 '예술인류학 시리즈' 네 권 째이다.

서옥식 회우 '어록으로 본 노무현…'

서옥식 회우(전 연합뉴스 편집국장)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북주의적 반시장적 진보주의'를 어록 중심으로 서술한 '서해 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어록으로 본 노무현의 종북좌파 진보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그의 1주기와 때를 같이해 도서출판 '도리'에서 펴냈다.

서 회우가 방대한 자료를 모아 펴낸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중의 어록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의 초등학교시절을 비롯해 인권변호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민주당 대선후보시절과 퇴임후 봉화마을 시절의 발언중 기록에 남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말 거의 전부를 정리한 것이다. 구성은 제1부 '세상을 바꾸자'를 비롯 총 37부로 돼 있고 각각의 말에는 반드시 출처(발언일자와 장소, 관련문헌 등)를 명기하고 있다. 머리말과 목차만 읽어도 대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필자는 노 전대통령 사후 나온 책들이 거의 노대통령 찬양일변도로 그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것들이지만 '어록집' 형태의 이책은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의 기록물이나 다름없으며, 다만 사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말 통령'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말로써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꼽자면 단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이 책을 쓰는 이유도 그의 거침없고 파격적인 말들을 통해 그의 실체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의 종북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를 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왜곡된 진보주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를 철저히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평화와 전쟁, 통일과 반통일의 구도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진보만이 가치 지향적이라는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사회의 최소한 50%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수층은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인이자 죄인이며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민조 회우 '담배 피우는 사연'

전민조 회우(사진작가·전 동아일보 출판국 사진부장)가 그의 아홉번째 사진집 '담배 피우는 사연'을 펴내고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토포하우스'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전 회우는 이번 전시회에서 금수현(음악가), 김대중(정치가), 김말용(노동운동가), 김수환(추기경), 김성종(소설가), 나웅배(정치인), 서정주(시인), 신성일(배우), 오태섭(연출가), 유진오(법학자), 조용필(가수), 천경자(화가) 등 작가가 사진기자 시절 인터뷰한 인사들 중 30여명의 담배 연기속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다.

담배를 쥐고 있는 사람의 손과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표정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제의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한 기업가가 연신 뻐끔 담배로 울분을 토하는 표정, 담배가 꼭 남성들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표정으로 거침없이 연기를 남성들을 향해 날리는 드라마 여성작가, 체포된 살인자가 인생을 마감하는 듯 후회와 절망으로 피우는 담배연기 등 사진작가 전민조는 우리들에게 담배는 무엇인가 묻고 있다.

그러면서 소란스런 시대에 사람들이 지독하게 담배연기를 허공으로 날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그는 담배는 결코 현실을 극복하는 도구는 되지 못하고 몸만 망친다고 말하고 있다.

전 회우는 서문에서 골초였던 자신이 금연에 성공한 사연을 말하고 '담배는 국민을 병자로 만드는 독약'이라는 생각에서 요즘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항상 불안하게 보면서 이 사진집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금연운동에 바치는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종수 회우 '수성 최씨의 뿌리와 줄기'

46년간 언론계에 몸담아 있으면서 언론관계에 많은 저서를 남긴 최종수 회우(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가 재작년에는 '80청춘 동유럽을 가다'라는 여행기를 내놓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씨족과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하나는 '시간의 물래'사에서 발행한 '수성최씨의 뿌리와 줄기'이고 또 하나는 같은 출판사서 발행한 '학은가문의 가승보'이다.

신국판 305쪽에 담은 '수성최씨의 뿌리와 줄기'는 총 4편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에서 시조의 득성사실(得姓事實)을 설명하고 10여 차례 걸쳐 족보를 중수한 내력을 밝히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다섯파계로 성정할 때까지의 상대(上代)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3편에서는 세보지장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내용분석방법을 통하여 효열(孝烈), 학문(學文), 충의(忠義), 관직(官職), 덕행(德行)등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5파간의 특색을 대조해 놓고 있으며, 마지막 제 4편에서는 5파중에서 저자의 직계 선조인 청제공파(淸齊公派)의 주요인물들의 행적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신국판 118쪽에 담은 또 하나의 책 '학은가문의 家乘譜(가승보)'는 상하 두 편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학은(鶴隱)은 할아버지의 아호이다. 상편(上篇) '수성최씨의 뿌리와 흐름'에서는 시조의 득성사실과 상대세계(上代世系)의 흐름을 나열하고, 저자의 직계 선조인 청제공파의 주요인물들의 행적을 활동영역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하편(下篇) '학은가문의 가승보'에서는 가까운 선조들, 즉 저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들과 삼촌, 형님와 형수, 본인과 아내 그리고 두 분의 작은 할아버지들을 저자의 기억을 더듬어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로부터 배출된 자손들을 계보화하여 약력을 붙여 기록해 놓고 있다.

요즘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에 있는지, 고모네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자기의 시조가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줄기를 타고 태어났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어린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땅에는 애족심(愛族心)도 애향심(愛鄕心)도 메말라버린 윤기없는 인간관계만 남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족보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는 없다. 족보에도 세보(世譜), 대동보(大同譜), 만성보(萬姓譜)처럼 범위가 넓은 것도 있고, 파보(派譜)나 가승보(家乘譜)처럼 범위가 좁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족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겨레가 그만큼 뿌리에 대한 관심이 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족보나 가승보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거의 모든 집안에 보존되고 있는데도 그것들이 대부분 순한문체(純漢文體)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세대들이 읽지 못하고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래서 저자는 오직 젊은이들에게 뿌리를 일깨워주려는 목적에서 누구나 소화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두 가지 해설서를 4년간 침침한 눈을 비비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명함없이 사는 법

정일화
· 본보 편집위원
· 전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명함을 부지런히 챙겨야 하는 직업 중의 하나는 언론인이다. 꼭 기사를 써야 할 인물이거나 쓸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도 우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기 위해 명함을 받아야 한다. 명함문화 속에 빠져 산다.

신문사를 나와서 겪는 가장 어색한 일 중의 하나가 명함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 가였다. 처음에는 무슨 대학 겸임교수, 대우교수, 단체의 이사 등의 명함을 만들어 어정쩡하게 명함문화를 따랐다. 세월이 지나니 뭘 기사쓸 것도 아닌데 굳이 명함을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명함 없이 살기로 했다.

상대방이 명함을 주면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이 없어 미안 합니다"는 말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도 군더더기 말 같아 상대방이 명함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의 명함을 한 장 더 받아서 명함 뒤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써 되돌려 주었다.

사전을 찾아보니 명함의 시초는 옛 중국의 죽간(竹簡)명함이 인류역사의 첫 명함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우리가 명함문화를 접한 것은 아마도 일제 때가 아닌가 한다.

일본 관리들이나 세력가들의 명함을 한 장 얻으면 우쭐해지고 또 상당한 활용도 했기 때문에 명함세도시대가 등장했고, 해방이 되면서 그런 세도문화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용성 보다는 명함이 있어야 행세하는 사람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명함을 돌리게 된 것이다.

명함을 중요한 직업자료라고 생각했던 기자로서도 수 십 권 명함첩을 뒤지면서 실제 명함을 직무에 쓴 것은 0.1%나 될까 말까 한데 사회에 돌아다니는 그 많은 명함의 실 효용도가 정말 의미 있는 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명함문화는 예의범절의 하나로 강요되고 있을 만큼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다.

명함문화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기를 바라는 인사들은 이 문화를 단단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무지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명함문화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명함 없이 사는 법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명함문화를 거슬러 사는 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첫째 상대방이 명함을 꺼내기 전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건넨다. 현재의 하는 일, 또는 과거의 직책을 말할 수 있을 것이나 명함 없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나면 상대방이 버릇없이 명함을 불쑥 꺼내거나 의미 없는 허례의 답례는 하지 않는다.

대개 이런 경우 상대방도 말로 자신을 정중히 소개하며 명함을 줄 때도 세도의식을 갖고 건네지는 않는다.

둘째는 분위기와 함께 가는 것이다. 친구들과 만날 때 중요한 친구가 먼저 소개되면 보조를 같이 하여 그 친구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설명한다든지,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셋째는 자신이 관여하는 모임을 소개하고 언제 한번 모임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하면서 친교관계를 만들어 간다.

넷째 서로의 연락처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한 수첩과 볼펜, 또는 쪽지를 갖고 통성명한다. 문방구에서 괜찮은 쪽지를 살 수 있다.

상대방을 알아보고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의미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명함을 건네면서 건성으로 인사하는 것 보다 훨씬 깊이 있고 정중한 교제의 시작이 되는 것을 가끔 느낀다.

생활수필

남을 배려하는 마음

김휴선
· 본회 회우
· 전 MBC 보도국부장
· 현 KOBACO 공익광고 협의회위원

최근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떴다. 내용인즉 지하철 노인 좌석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어느날 젊은 아가씨가 노인 좌석에 앉았다.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말하기를 "여보! 아가씨 이 자리는 노인들만이 앉는 자리야"라면서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젊은 아가씨 뒤질세라 "저도 돈 내고 탔어요" 라고 대답 한다. 노인이 무어라고 애기했겠습니까? "아가씨 이 자리는 공짜로 타는 사람들만 앉는 자리야" 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노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뒷맛이 씁쓸하다.

그렇다. 요즘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 가는 곳마다 노인 만원사례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노인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부터는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한다. 또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된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가 44만 5천 200명이 태어났다. 그러나 금년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건복지부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신생아 출생은 줄어드니 말이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정부는 어떤 뾰족한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다. 26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과 함께 4대 노인 강국이 된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다보면 노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지하철 칸마다 양 옆으로 보통 12개의 노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노인들이 한 칸에 최소한 12명이 자리에 앉아 갈 수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 좌석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개 나이가 많지 않은 노인들은 서서 갈 수밖에 없다. 옛날 같으면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해주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궁여지책으로 지하철공사에서는 최근 들어 전동차 마다 임산부나 장애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지만 아직 계도(PR)가 덜 된 탓인지 아무나 앉고 있다.

지하철은 비단 좌석문제 뿐만 아니다. 차 안에서 꼴불견도 많다. 젊은 사람들의 애정표시는 옛 말이고,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 친구간에 크게 웃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마치 시장바닥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다. 꼭 필요한 전화는 다음 역에서 내려 할 수도 있고, 또 걸려온 전화는 상대방에게 차 안이라는 간단한 양해를 구하고 끊으면 될텐데 말이다. 어느 사람은 자기 안방처럼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마치 자기 사무실처럼 아예 전화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중요하고 급한 전화면 차에서 내려 하면 될 것이다. 지하철 역간의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분이면 된다. 역에서 내려 전화를 하고 다음 열차를 타면 될 것이 아닌가. 이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서양에서는 차 안의 매너를 보고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판가름 한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차안에서 조용히 책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수준이 높은 나라일 수록 교양서적 같은 책을 읽고,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는 일반 신문 같은 것을 본다고 한다. 그리고 수준이 아주 낮은 국가일수록 저급한 신문(옐로지), 또는 잡지 같은 것을 본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수준에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요즘 차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타블로이드판인 무료 신문을 많이 읽는다. 경제가 나쁜 탓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스포츠지 연예기사를 많이 본적도 있었다.

필자는 몇 달전 차 내에서 정숙을 요하는 방송을 자주해 달라고 지하철 공사에 요청한 적도 있다. 또 다산 콜 센터에도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차 안의 매너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하철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한다. "가급적 통화는 짧게 하십시오. 통화가 급하신 분은 다음역에서 내려 하십시오"라고 말이다.

일본을 따라 갈 필요는 없지만 좋은 점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언젠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어느 일본 전자회사 사장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도 일본을 배워야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삼성)도 구멍가게가 된다"고 말이다. 의미 있는 말이다. 좋은 점은 배워야 한다. 일본이라고 무조건 배척 할 필요는 없다.

바둑 이야기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발족에 부쳐

정 기정
· 본회 부회장
· 전 마산 MBC 사장

바둑은 과거에 '신선들의 놀이'나 '선비들의 도락' 또는 '잡기' 쯤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젊은 시절 현직에 있을 때만해도 직장에서 바둑 둔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다.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면 으레 상사에게 찍혔기 때문이다. 바둑만 두고 일은 언제 하느냐고.

그 당시만 해도 놀이 문화라든가 주5일 근무제 같은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바둑 전문 TV 채널이 3개나 있고 바둑 전문 웹사이트가 9개나 있으며 대학에 바둑학과까지 생겼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의 꿈은 프로기사가 되는 것이며 바둑 입단대회는 사법시험 관문보다 더 좁고 어렵다고 한다.

바둑이 신선들의 놀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바둑은 지금 게임이나 놀이문화를 넘어 산업·학문분야로까지 확대일로에 있다. 우리나라 바둑 인구는 1천2백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왜 이처럼 바둑이 번성하는 걸까?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바둑의 최강국이 된 것을 첫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훈현-이창호-이세돌로 이어지는 불세출의 기재들이 출현하여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세계 바둑을 완전히 정복해 버린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을 찾는다면 한중일 3국이 세계 바둑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여 골프나 야구 축구 등 인기스포츠에 못지않은 상금의 대형화를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바둑의 종주국은 원래 중국이다. 지금부터 약 4200년 전 요(堯)왕과 순(舜)왕이 자기의 아들인 단주와 상균이 어리석고 항상 놀기를 좋아해 아들에 대한 왕도교육을 목적으로 바둑이 창안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중국바둑의 원리 속에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 주역(周易)과 노장(老莊)사상, 인간사회의 권도(權道)와 세도(勢道)의 법칙, 군왕이 지켜야 할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기본 수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고의 바둑 고전인 '현현기경'의 서문을 보면 "바둑은 하늘과 땅의 둥글고 모난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속에는 음양과 정(靜) 동(動)의 이치가 있고 성진분포의 서열과 풍운조화의 기틀이 있고 인(仁)으로 지키고 의(義)로 행하고 예(禮)로 질서를 정하고 지(智)로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니 바둑을 어떻게 다른 기예와 같이 볼 것인가"라고 말하고 "바둑을 두는 방법과 도(道)는 국가에서 정령을 출납하고 군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배워서 익히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계감이 될수있다"고 적고 있다.

또 후한(后漢)의 사학자 반고가 쓴 기국론(棋局論)에 보면 바둑판은 361로인데 그 중심인 극(天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운영된다. 361은 주천(周天) 즉 1년을 뜻하며 네 귀는 춘하추동의 4계절을 따른 것이요, 둘레의 72로는 1년의 72절후를 의미하며 바둑판의 줄은 평(枰), 줄과 줄 사이는 괘(罫)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고전들의 바둑에 대한 정의는 바둑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왕도(王道) 교육의 필수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중화사상의 뿌리인 주역(周易)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바둑계의 거인인 마요춘 9단은 어느 인터뷰에서 "바둑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바둑은 아이로니컬 하게도 일본으로 건너가 꽃을 피운다 일본은 16세기경 각 지방의 영주들이 바둑을 관장하는 관청인 기소(碁所)를 차려 바둑을 장려, 보급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목숨을 걸고 두는 쟁기(爭碁)들이 많았다.

18세기 혼인보와 인세키간의 토혈국(吐血局)은 대표적인 예다. 바둑을 두다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로 한판의 바둑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일본은 20세기 초 불멸의 기성(棋聖)으로 추앙받는 중국인 吳淸源을 일본으로 귀화시켜 바둑을 더욱 이론화, 체계화 시키고 이른바 현대 바둑의 중흥기를 맞게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일본 바둑은 1980년대 말까지 세계 바둑을 호령해 오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둑의 세계 최강국 지위를 우리나라에 넘겨주게 된다. 이창호, 이세돌이 그 선봉장이다.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바둑 유학을 가지 않으면 프로기사로 대성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유럽, 러시아, 대만은 물론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유학 오는 바둑인이 많다.

2002년도에는 세계 바둑대회(8개 대회)를 모두 한국이 제패한 기록도 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흥분된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최근 들어 바둑 한국의 우월적 지위가 중국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게 바둑계의 공론이다.

바둑 실력도 국가의 흥망성쇠와 정비례한다는 속설이 사실일까?

중국의 경우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중국인들은 지난 20여 년간 바둑과 축구에 관한한 공한증(恐韓症)에 걸려 한국선수들을 만나기조차 꺼렸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 동안 절치부심, 국가 차원에서 젊은 바둑선수들을 집단훈련하고 지원해 온 결과 이제는 한중의 바둑 실력이 엇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중일 3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바둑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경하할 일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더 큰 분발을 기대해 본다.

이번에 모처럼 대한언론인회 기우회가 탄생했다. 취미활동 모임으로는 산악회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많은 회우들이 노후의 무료함을 바둑으로 달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바둑은 정신건강, 특히 치매에 좋다는 것이 의학계의 결론이고 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묘약이라고 한다.

바둑은 단순한 놀이라기보다 한판의 바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교육도 없을 것이다. 바둑을 즐기는 많은 회우들의 참여를 바란다.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발족

기우회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회우들(위)과 대국 장면.

대한언론인회 기우회가 지난 5월 11일 발족됐다. 취미활동 모임으로는 산악회에 이어 두번째. 회장에는 鄭基政 본회 부회장, 총무에는 吉允錫회우가 선출됐다. 기우회는 분기별로 종로3가 국일관옆 바둑세계기원(02-325-2025)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연말께 바둑대회를 갖기로 했다. 회원은 22명.

제4땅굴 입구에서

을지전망대에서 브리핑을 들으며

박수근 미술관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

펀치볼 휴게소에서의 즐거운 점심.

귀로 춘천에서 즐긴 막국수맛

을지전망대에서 펀치볼을 배경으로.

6·25 격전지 찾아

대한언론인회 야외 수련

대한언론인회 봄철 야외수련 행사가 5월 27일 80여 회우들이 동참한 가운데 멀리 강원도 양구 일원에서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6·25 전적지 답사를 겸해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쾌청한 초여름 날씨에 훤하게 뚫린 춘천가도를 두 시간 30분정도 달려 처음 찾은 곳은 양구 박수근미술관. 곤궁한 시절에 힘겹게 살아갔던 서민화가 박수근의 숨결이 담겨있는 유품과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여러 작품들이 소장된 박수근 미술관은 뛰어난 조형성으로 200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되었고 2006년 대한민국 건축상을 수상한 건물이다.

양구 대표문화공간 박수근미술관

'절구질하는 여인' '빨래터' '고목과 여인'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은 향토색 짙은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며 사랑을 받고 있다. 야외 수련에 동참한 이구열 원로회우(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는 특히 박수근 화백과 술자리도 같이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속초에서 승용차로 양구로 와 합류한 박명근 회우(본회 복지기금위원장)도 박수근 화가는 양구의 인물이기 전에 세계적 화가라고 극찬했다.

박수근미술관 지근거리엔 선사박물관이 양구를 빛내주고 있지만 한창 리모델링 중이라 지나칠 수밖에 없음이 못내 아쉬웠다. 양구읍 상무룡리의 구석기 유적과 해안면 일대의 신석기, 청동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집중 전시한 이 박물관은 선사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직접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연출한 전국 최초로 건립된 선사시대 전문박물관으로 유명하다.

양구시민 자존심 방산자기박물관

이곳에서 버스로 한 30분쯤 달리니 양구시민의 자존심 방산자기박물관이 반긴다. 양구 방산면에 자리한 이 자기박물관은 이미 고려시대 이래로 주목받던 곳. 전시관에는 백자 요도구 도편등 3천 1백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본회 박기병 회우(전 기자협회 회장)가 기증한 자기가 여러 점 전시돼 있어 마치 '박기병자기박물관' 같은 느낌을 준다. 2006년 6월 개관한 이 박물관은 또한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어 조선 백자를 직접 만들어 보려는 학생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양구에 가면 10년은 젊어진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은 젊어진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산기슭에 유난히 돋보이는 배후령 고개. 그 누가 구절양장이라 했던가. 오봉산 가는 등산로를 지나 20여분을 달리니 지난해 개통한 돌산령 터널, 길이 3천m 터널을 지나 10여분을 달리니 고대하던 펀치볼 지구.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모두들 시장한 기색이 완연하다. "왜 양구에 오면 10년은 젊어지느냐"는 한 회우의 물음에 미모의 여성 해설사는 그게 바로 곰치 나물 덕분이란다. 산자수명한 자연도 물론 젊게 하는 비결이지만 양구의 곰취는 너무 유명해 매년 '곰취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소문나 있단다. 그래서인지 산채 나물을 곁들인 버섯전골 점심메뉴에 몇 잎 맛만 보라고 올려놓은 곰취 나물이 단연 인기였다.

홍원기 회장의 인사말에 이은 김진섭 원로 회우의 화끈한 건배제의도 인상적이었지만 여기저기서 노익장 과시가 부럽다고 탄성 또 탄성이다.

땅굴 입구엔 산화한 충견비도

점심 식사 후 서둘러 제4땅굴을 찾으니 입구에 세워진 충견비(忠犬碑)가 눈길을 끈다. 땅굴 발견당시 이 굴을 수색하던 중 북한군이 설치한 수중지뢰에 의해 산화한 군견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제 4땅굴은 북한이 새로운 침투 방법으로 뚫은 땅굴로 1978년 제3땅굴이 발견된 지 12년 만인 1990년 3월 3일 양구 동북쪽 26㎞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서늘한 땅굴 속은 제법 넓었다. 군데군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폭파자국은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 오기위해 얼마나 애를 썼나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북한군이 쳐내려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몸이 오싹해 진다.

참전 회우들 아리랑TV와 인터뷰

을지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화합 · 우의의 하루

800여 회우 양구 일대 탐방

이곳에서 6·25 참전회우들은 동행한 아리랑 TV 기자와 인터뷰하기 바빴다. 김진섭 원로 회우는 예정에도 없었던 인터뷰였지만 때가 때인지라 인터뷰에 만족한 기색이다.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회우들은 을지전망대로 직행. 이곳에서도 6·25 참전 회우들은 아리랑 TV와 인터뷰 하느라 분주하다. 계성일 김관태 김진섭 송두빈 안현태 이구열 이순기 이종기 오판룡 지연흥 지용우 한영섭 홍성혁 황대연 회우가 펀치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마치자 황대연 원로회우는 내킨 김에 대한언론인회 안에 참전동우회(가칭) 같은 모임을 정례화 하자고 즉석 제의, 박수를 받았다.

금강산 비로봉등 한 눈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을지전망대는 양구 동북쪽 27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km 남쪽 지점에 해안분지를 이루고 있는 가칠봉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1987년 12월 12일 전경련회장단이 육군 제1862부대를 방문해 안보교육관의 건립을 제의했고 이듬해인 1988년 5월 31일 1억2,500만원을 부대에 기탁함으로써 건립된 것이다. 금강산 비로봉 등 내금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발 1,049m의 최전방 안보관광지로 매년 1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을지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 산야는 안내병사의 설명대로 북한의 집과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한가한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산등성이까지 다락 밭을 일군 형상이 완연하다. 길이 뚫린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새삼 천안함 침몰로 긴장된 남북관계 까지 오버랩 돼 마음이 무거워 진다.

6 · 25 최대의 격전지 펀치볼

을지전망대에서 동남쪽 펀치볼을 내려다보니 동서 3.5km의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해안분지가 대암산(1,304m) 대우산(1,179m) 도솔산(1,148m)·가칠봉(1,242m) 등이 둘러싸 거의 완전한 모양의 원을 이룬다.

한국전쟁 때 이곳 지형을 본 미국 군인들이 마치 펀치를 담는 '화채그릇'(Punch Bowl)을 닮았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휴전회담이 제기된 직후 미 해병대 제1사단과 한국 해병대 제1연대가 이곳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형상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3주간 피의 대공방전을 감행한 곳으로 유명하다. 을지전망대와 가전리 일대에 배치된 북한 공산군 제3군단 제1사단을 치열한 혈전 끝에 격퇴함으로써 한국해병대의 위용을 크게 과시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가리켜 '신이 경탄할 공훈'이라 격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솔산, 대우산, 백석산, 가칠봉 피의 능선에서 이름 모를 고지에서 죽거나 실종된 군인들만 이만팔천삼백여 명…/ 지옥 같던 포성 속 어머니 어머니/ My Heart Breaks, Heart Breaks! 간절한 전설이 되고/ 아군도 적군도, 유엔의 깃발아래 바다를 건너온 푸른 눈의 군인들도 하늘로 올라/ 비와 구름으로 때론 폭설로 그 날의 치열함을 전할뿐이네…/ 신화가 태어난 땅 양구를 지날 때/ 피보다 더 붉은 꽃을 보거든 영혼이 피었다 생각하게나/ 바쁜 걸음 멈추고 잠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해주게나" 펀치볼 전쟁기념관 입구에 걸린 시가 처절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

그러고 보니 해안면(海安面)이 해안면(亥安面)으로 바뀐 유래도 흥미롭다. 원래는 바다해(海)자 해안(海安)이었는데 뱀이 하도 많아 뱀의 상극인 돼지 해(亥)자를 쓰라는 어느 노승의 말대로 해안(亥安)이라 했더니 뱀이 사라졌다니 믿거나 말거나 전설은 전설이 아닌가.

소문난 춘천 막국수 맛도 백미

이날의 백미는 역시 춘천 샘밭 막국수 맛. 소문대로 쇄도하는 손님들 때문에 푸짐한 뒤풀이를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출출해진 배를 채운 기분은 양구군 주장대로 모두들 십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그러고 보니 이번 행사는 야외 수련에 문화역사 탐방을 겸한 값진 나들이가 아니었나 싶다.

끝으로 안보교육장을 답사 할 수 있도록 정성껏 안내해 준 양구군청 안중선 계장과 이창순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한 후의에 감사한다.

또한 시종일관 열심히 수고해준 이보길 행사집행위원장과 나용경 간사, 황귀근 국장, 주소영 양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글 · 정운종 본회 상임이사.
사진 · 이보길 본회 행사집행 위원장

6 · 25 종군 · 참전 회우들의 파이팅

방산자기박물관에 전시된 박기병 회우의 기증품.

방산자기박물관에서 제작 과정을 둘러보는 회우들.

아리랑TV와 회견하는 김진섭 원로 회우.

아리랑TV와 회견하는 한영섭 원로 회우.

www.wowtv.co.kr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는 뉴미디어에서 또 한번 앞서갑니다!

지상파DMB

위성DMB

아이폰

모바일웹

휴대폰

※ 어느 기종이든 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MB(지상파, 위성) : 실시간 방송

1) 지상파 DMB
- 서비스 지 역: 서울, 경기 지역
- 방송 시 간: 매일 24시간
- 채널명 : WOW-TV
- 이용 방법
  - 지상파DMB 단말기(휴대폰, 네비게이션 등)에서 DMB 실행 후 WOW-TV 채널 선택
  - WOW-TV 채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널검색 1회 시행

2) 위성DMB
- 서비스 지역 : 전국
- 시청 가능 시간 : 매일 08시 ~ 16시
- 채널번호 : 17번
- 이용 방법
  - 위성DMB 단말기(휴대폰, 네비게이션)에서 DMB 실행 후 채널17번 "한국경제TV" 선택

스마트폰(앱스토어, 모바일웹) : 실시간방송 + 증권정보

1) 이용방법(앱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App Store) 검색창에서 "한국경제TV" 검색 후 다운로드 설치
- 바탕화면의 "한국경제TV"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

2) 이용방법(모바일웹)
-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m.wowtv.co.kr 입력
- [홈화면에 추가] 또는 [책갈피에 추가]하여 간편하게 이용 가능

3) 제공 콘텐츠
- 뉴스 : 한국경제TV가 발빠르게 전하는 증권 뉴스 제공
- 방송 : 한국경제TV 실시간 생방송과 VOD(동영상뉴스, 투자전략, 종목상담) 제공
- 시세 : 국내외 주요지수, 관심종목, 현재가, 호가, 차트 제공
- 스탁킹 : 각 증권사를 대표하는 10인의 실시간 수익률 및 매매내역 정보 제공

휴대폰(969모바일증권) : 증권정보

1) 이용방법
- 휴대폰에서 숫자 "969" 누르고 무선인터넷키(Nate, Show, Oz) 누르면 바로 접속
- 첫 화면에서 국내지수, 해외지수, 매매동향, 관심종목 시세 바로 확인
- 궁금한 종목은 종목코드 입력 후 현재가조회 버튼 누르면 바로 확인

2) 제공 콘텐츠
- 시세 조회 : 국내외 주요지수, 관심종목, 현재가, 호가, 차트 제공
- 뉴스 : 한국경제TV가 발빠르게 전하는 증권 뉴스 제공
- 스탁킹 : 각 증권사를 대표하는 10인의 실시간 수익률 및 매매내역 정보 제공
- 추천종목 : 시장주도테마 종목과 다양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종목추천

이용문의 02-6676-0000 02-6676-0092

他界 회우 명복을 빕니다

김경식 회우 언론인장 엄수

고 김경식 회우

김경식 회우(전 KBS 보도국장)가 5월 9일 별세 했다. 대한언론인회는 5월 10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많은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경식 회우는 1934년 평안남도 중화에서 출생해 국립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신문대학원 국제보도과정을 수료했다. 1958년 당시 세계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동화통신 기자 서울신문 논설위원, 한국방송공사 동경지사장, 보도국장 올림픽방송본부 본부장, 홍보실장, 방송연수원장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사무총장직도 역임했다.

이귀암 회우 언론인장 엄수

고 이귀암 회우

이귀암 원로 회우가 5월 25일 노환으로 별세 했다. 장례식장은 서울대병원 영안실.

발인은 5월 27일 오전 6시. 이 회우는 1921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하여 일본 대성 제2중학교와 일본대학교 전문부 법과를 수료하고 1947년 대중일보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 대중통신, 연합신문, 태양신문, 동양통신, 세계통신을 거쳐 일본경제신문 서울 지국 기자, 특별촉탁으로 일했다.

대한언론인회는 5월 26일 오후 4시 홍원기 회장을 비롯, 많은 원로 회우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추도식을 가졌다.

고 김경식 회우 빈소에서 홍원기 회장이 조사를 하고 있다.

고 이귀암 회우 빈소에서 박재권 원로 회우가 조사를 하고 있다.

弔辭

'처세' 외면한 원칙의 언론인

김 선배,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들은 다 80을 훌쩍 넘어서도 씩씩하게 잘 살고 인생도 즐기고 있는데 80이 되려면 아직 몇 년이 남은 김 선배가 작고하시다니, 얼마 전 뇌 속에 문제가 생겨 입원 하셨는데 의식이 불명하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가서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아놓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김 선배와 저의 인연은 1965년 내가 서울신문 정치부로 옮겨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치부 차장, 저는 기자를 시작한지 만 3년도 안 되는 그야말로 올챙이였습니다. 처세와는 담을 쌓아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자들의 글을 끊임없이 고치는 철저한 데스크, 신문의 원칙에는 양보가 없으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남자의 정이 배어있던 감독자였기에 그때 나는 김경식 차장의 부하기자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언론계에 그런 선배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 선배는 세상사는 일과 처세에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후배인 (그는 서울대 문리대를 나왔다) 부장 밑에서도 "기자는 기자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에만 열중하셨고 특별히 윗사람에게 접근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서울신문에서 경제부장 동경특파원, KBS에서 보도국장등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로서의 출중했던 역량 때문이었지 특별히 이른바 교제 따위를 해서 되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60년대에는 많은 기자들이 특별히 모시는 선배가 있었고 그를 따라 이 신문 저 신문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풍습이 있었지만 김 선배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기자였고 또 자기를 따르는 기자를 챙겨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저 역시 김 선배가 서울신문을 떠난뒤 김 선배를 챙기지 않았으니 김 선배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나 할 까요.

세상사는 일에 초연하셨기에 자신의 건강도 별로 챙기지 않으셨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소리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시다 보니 제 생각에는 남들 보다 일찍 타계하신 듯 합니다. 고지끼 형. 안녕히 가십시요 (선배께서 입에 달고 살던 거지라는 일본말 표현이 선배의 별명이 된 것은 잘 아시지요)

저도 이제 70을 훌쩍 넘어 김 선배와 함께 기자를 했던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셈입니다. 김 선배의 죽음을 문상하면서 저도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저도 선배님의 뒤를 따르게 되겠지요. 원칙도 처세도 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상준이 동준이 아끼시던 아드님들도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 겁니다.

이한수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사장

정의감 넘쳤던 투사적 기개

이귀암 선생!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몇 몇 원로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며 노익장을 과시 하시던 선생이 가시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입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비보에 선생과 오랫동안 교분을 같이했던 우리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고 이귀암 선생의 명복을 빌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과 나는 부산 피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선생이 사회부 기자 때 함께 취재전선에서 고락을 같이 한 기억이 주마등 처럼 떠올라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30년 가까이 코스모스회에서 만나 교분을 두터이 했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생을 마감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귀암 선생! 선생은 그래도 두 가지 복을 타고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이보다 다행한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복 가운데 하나가 '고종명(考終命)'이라 했으니 우리 나이 90이면 천수를 다하신 것이니 이 또한 복중의 복을 누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선생은 해방 전 한 시대를 살면서 나라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21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나신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대성 제2중학교와 일본대학교 전문부 법과를 수료하신 것은 그만큼 선진 문물에 눈이 밝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1947년 대중일보 사회부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하신 것은 남다른 정의감으로 혼란기의 국기를 바로 잡고자 한 투사적 기개가 엿보였다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창 좌우익이 대립해 있던 당시의 혼미한 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서셨고 6·25 전란 중에는 대한통신, 중앙일보, 연합신문, 태양신문에서 역시 필봉을 통해 자유언론 창달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신 것은 선생과 교분을 두터이 했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90평생을 언론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후진들을 감화 시키셨던 선생을 우리들은 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하는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선생을 마지막 보내드리는 이 자리엔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선생의 가심을 슬퍼하며 도열해 있습니다.

원로 회우로서 후배들을 남달리 사랑하셨던 선생의 값진 삶은 우리들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후고의 염려를 훌 훌 떨쳐 버리시고 모든 번뇌도 아픔도 없는 저승에서 부디 영생극락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박재권
· 본회 원로 회우
·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주간 통일신문에 기고

곽찬호 회우(6·25 참전 유공자)= 지난 4월 26일부터 주간 통일신문(발행인 장청수 대통령 통일고문)에 매주 경제 해설, 남북, 북미, 북중, 북일관과 칼럼 기고.

성지 순례 준비위해 미주 캐나다 출장

김 현 회우(방송인·여행 연출가)=지난 3월의 호주 뉴질랜드 여행직후부터 문공회와 로터리 클럽의 여행특강과 3주간의 수도회 강의를 마친 다음 바로 2011년 6월 10일부터 있을 성지순례 준비를 위해 5월 24일 부터 6월 23일까지 미국 캐나다 출장길에 올랐다.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박기병 회우(전 기자협회 회장) =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맡아.

이화여대에서 공로패

안광식 회우(이화여대 신방과 명예교수)=5월 12일 11시 30분 이화여대언론홍보영상학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패 받아.

3당대표 초청 TV토론회

오건환 회우(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 6월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초청, TV토론회를 개최.

4·19 유공 건국포장

김정기 회우(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 50년전 4·19혁명 당시 데모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적극 참여한 공로로 4·19 건국포장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 소비자 포스트 창간

신광식 회우(전 KBS 해설위원) = 인터넷 신문 '소비자 포스트'(www.sobizapost.com)를 최근 창간. 전화 2231-2322

인터넷 정책토론 진행

윤재홍 회우(경기대 예술대학 정치매체관리학과 교수)=지난 5월 7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최한 '인터넷선거보도의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수상

이혜복(본회 고문·사진상), 문제안(본회 원로회우·사진 중), 임인흡(본회 원로 회우·사진 하) = 5월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있은 서울언론인클럽(회장 강승훈) 제25회 언론상 시상식에서 이혜복 본회 고문은 한길상을, 문제안 임인흡 원로회우는 특별상을 받았다.

역사문화 탐방차 중국여행

제재형 본회 고문 = 5월 24~28일 역사 탐방및 선교지 순례 차 중국방문. 5월 7일 양평공원묘지에서 거행된 전 국회의장 운경(雲耕) 이재형 선생 1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 읽음. 4월 7일 성제(省齊) 이시영 선생 57주기 추모식 및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 탄신 120주년 추모식 참석, 5월 5일 고려대 개교 105주년 및 5월 8일 연세대 개교 125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심사위원장

천상기 회우(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환경부와 환경방송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환경문화 대상 심사위원장에 위촉. 시상식은 6월 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병원 입원 가료 중

현영건 원로 회우 = 작년 12월 이래 '포근한 노인전문병원(강북구 미아3동 소재 전화 986-9988)'에 입원 중.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이상우회우 의장에 취임

이상우 본회 회우가 지난 13일 천안함 사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장관급)에 취임했다.

이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북 군사전략과 관련해 국방정책 기조를 그동안의 방어전략 위주에서 억지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의 도발 의지를 꺾고 도발 시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병 부회장 LED 모니터 기증

윤기병 본회 부회장(전 정무장관실 차관)은 지난 5월 21일 24인치 LED 모니터 1대를 본회에 기증했다.

LED 모니터 기종은 본회 조성국 원로 회우가 최신형 컴퓨터(모니터 본체, 레이저프린터)를 기증한 이래 두번째다. 본회엔 회원 전용 컴퓨터가 설치 돼있어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6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1일 (송호창 이희경)
2일 (고명진 백환기)
3일 (정만호)
5일 (마권수 송두빈 이필면 임학수)
6일 (정준창)
8일 (한영도)
10일 (손세일)
11일 (이기한 이준우 정병수 한규남)
12일 (성낙오)
13일 (유성열)
14일 (조강환)
15일 (김세경 김정한 김충수 엄종석 오건환)
17일 (최종명)
21일 (최상목)
22일 (지정식)
23일 (고덕환 권영국 정웅교)
24일 (김석성 김종열 김철진)
28일 (송용식 양휘부)
29일 (송경섭)

▶ 자녀 결혼 ◀

♥ 김길홍 회우 : 6월 5일 오후 2시 자유센터(한국 자유총연맹) 웨딩홀에서 장남
♥ 김도진 회우 : 6월 5일 오후 5시 30분 삼청각에서 딸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

★ 신광식 회우 = (우151-817)
서울 관악구 인헌동 196-135 교체빌 202호

★ 김재영 회우 = 전화번호 변경
010-7722-2805

★ 동홍석 회우= (우 134-825)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1 한화오크벨리스크 605호

★ 김진섭원로 회우 = 전화번호 변경
010-3556-7464

▶ 알립니다 ◀

본회 사무처에 전화 1대가 증설됐습니다.
기존 전화 : 732-4797 2001-7621 팩스 730-1270
신설 전화 : 02-732-4798

▶ 바로잡습니다 ◀

5월호 참전 회우 명단 중 이지웅 회우 전직은 동양통신 편집국장으로, 송두빈 회우 전직은 내외경제 편집국장으로 정정.
5월호 6·25 참전회우 명단에 안광식 이종기 회우를 추가.

CBS Multimedia Group

Beyond CBS!

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CBS

희망의 메세지와 건강한 여론이
CBS 멀티미디어 세상에 있습니다.

2010 CBS 캠페인 •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노컷뉴스
nocutnews.co.kr

ShinWon
주일은 주님과 함께

패션으로 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

글로벌 패션리더-신원

믿음의 경영철학과 사랑의 기업문화로 고객의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합니다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 ShinWon